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19. 11 | No.122

# 차례

## I. 해외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2
(4) 유로존 .....	13

## II. 국내 실물경제

1. 생산, 소비, 투자 .....	15
2. 고용 .....	17
3. 물가 .....	18
4. 금융·외환 .....	19
5. 수출입 .....	21

##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2
(1) 총괄 .....	22
(2) 자동차 .....	25
(3) 조선 .....	26
(4) 일반기계 .....	28
(5) 철강 .....	29

(6) 정유 .....	30
(7) 화학 .....	32
(8) 섬유 .....	33
(9) 가전 .....	35
(10) 무선통신기기 .....	36
(11) 반도체 .....	37
(12) 디스플레이 .....	38
2. 서비스산업 .....	40
(1) 생산 .....	40
(2) 고용 .....	42
(3) 서비스수지 .....	44

####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	47
(1) 생산 .....	47
(2) 고용 .....	48
(3) 수출 .....	50
2. 지역별 동향 .....	51
(1) 서울·인천·경기 .....	51
(2) 대전·세종·충북·충남 .....	53
(3) 광주·전북·전남 .....	55
(4) 대구·경북 .....	57
(5) 부산·울산·경남 .....	58
(6) 강원·제주 .....	61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19. 11 | No.122

발행인	장지상
편집인	조영삼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 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a href="http://www.kiet.re.kr">http://www.kiet.re.kr</a>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이호문화사

# I

## 해외경제 동향

### 01 대외 여건 동향

#### (1) 세계 경제

- 미국은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자신뢰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 등 체감지표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약화를 시사
  - 지난 3분기 소비 증가세 둔화와 기업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1.9%로 하락(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0%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저치)
- 일본은 8월 중 생산 부진에도 소비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급반증하고, 유로존에서도 역내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하고, 체감지수도 3개월 만에 상승
  -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8% → 10%)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 도입 등 보완조치를 병행, 유로존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3개월 연장(10.28일), 영국 의회의 조기 총선(12.12일)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
- 중국은 9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서도 3분기 성장률이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낮은 전년동기비 6.0%로 하락
  -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6.0%로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정부 목표치(6.0~6.5%)의 하한선에 근접하면서 정부 대응 방향에 관심

##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미국	실질GDP <sup>1)</sup>	2.9	3.1	2.0	1.9					
	산업생산	3.9	-0.5	-0.6	0.3	0.2	0.1	-0.2	0.8	-0.4
	소매 판매	4.8	0.3	1.9	1.5	0.5	0.4	0.7	0.6	-0.3
	무역수지 <sup>2)</sup>	-627.7	-156.5	-163.3	-161.5	-55.8	-55.5	-54.0	-55.0	-52.5
일본	실질GDP	0.8	0.5	0.3	-					
	광공업생산	1.0	-2.5	0.7	-	2.0	-3.3	1.3	-1.2	-
	소매 판매	1.7	-1.3	0.4	-	0.4	0.0	-2.3	4.6	-
	무역수지 <sup>2)</sup>	-1,225	-563	-327	-	-970	588	-252	-144	-
유로	실질GDP	1.8	0.4	0.2	-					
	산업생산	0.9	0.5	-0.6	-	0.8	-1.5	-0.4	0.4	-
	소매 판매	1.6	0.9	0.5	-	-0.3	0.8	-0.5	0.3	-
	무역수지 <sup>2)</sup>	191.5	54.5	51.4	-	18.3	17.8	17.5	20.3	-
중국 <sup>3)</sup>	실질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5.0	6.3	4.8	4.4	5.8
	소매 판매	8.2	8.3	8.5	7.6	8.6	9.8	7.6	7.5	7.8
	수출(달러화)	9.2	1.0	-1.0	1.8	1.0	-1.3	3.3	-1.0	3.2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2) 국제금융·유가

### □ 달러화 강세 및 유가 상승 지속

- 지난 10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는 등락을 거듭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 엔/달러 환율은 109엔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0월 말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유가는 일시 하락

##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1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8일
엔/달러	111.39	110.86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26
달러/유로	1.1371	1.1218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미 국채(10년 만기)	2.72	2.41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94
WTI유	57.2	60.1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7.2
두바이유	66.0	67.6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0.3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세를 보인 바 있으나, 11월 들어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 감소 지속(3주 연속) 등으로 상승 지속
- WTI유는 배럴당 57달러 선으로 9월 이후 최고치, 두바이유는 60달러 선

## 02 주요국 산업 동향

## (1) 중국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8%로 3개월 만에 회복세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한 5.8%로, 3개월 만에 회복세로 전환
  - 광업은 전월보다 무려 4.4%포인트 상승한 8.1%로 최근 1년간 최고치
  - 제조업은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6%로 3개월 만에 회복세로 전환
- 9월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주식제기업과 민영기업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주식제기업은 전년동기비 6.9%를, 민영기업은 6.7%를 각각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이고, 국유기업은 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1/4분기	상반기	연간	상반기	7월	8월	9월
공업 전체		6.9	6.7	6.2	6.0	4.8	4.4	5.8
섬유	방직	5.5	2.0	-0.1	-0.1	-3.3	-6.1	-5.5
	화학섬유	5.2	8.4	7.7	12.0	8.0	9.3	18.6
화학	에틸렌	0.2	0.5	1.0	9.8	3.6	1.8	0.2
	플라스틱원료	4.7	4.8	4.2	7.4	7.2	5.7	6.0
	플라스틱제품	2.3	1.6	1.1	2.6	5.1	2.1	4.5
철강	선철	-1.2	0.5	3.0	7.9	0.6	7.1	2.1
	조강	5.0	6.0	6.6	9.9	5.0	9.3	2.2
	강재	5.0	6.0	8.5	11.4	9.6	9.8	6.9
비철금속		2.3	3.1	6.0	4.3	2.6	4.4	5.1
기계	금속절삭기계	6.3	6.1	0.4	-10.5	-17.4	-21.3	-17.8
	소형 트랙터	-35.8	-31.2	-34.0	-30.2	-31.3	-12.1	-18.9
	대기오염방지설비	12.1	7.3	-4.4	94.6	-6.5	-4.6	-3.1
	발전설비	-19.9	-9.7	-9.3	-20.6	-10.2	-13.3	-24.5
자동차		0.4	3.5	-3.8	-14.2	-11.5	-0.6	-6.9
조선		-30.1	-23.5	-7.5	12.2	5.0	0.8	50.8
전자	세탁기	-0.2	0.3	-0.4	9.2	-7.3	4.9	7.6
	냉장고	2.3	3.1	2.5	4.5	9.0	-5.2	3.9
	에어컨	12.9	14.4	10.0	10.2	-3.0	-2.9	10.6
	컬러TV	15.5	15.1	14.6	4.6	-12.1	-12.8	-4.0
	컴퓨터	4.2	7.8	4.5	4.2	12.4	5.1	12.3
	반도체	13.6	15.0	9.7	-2.5	7.7	0.2	13.2
	휴대폰	3.2	3.4	-4.1	-6.9	-4.5	-6.2	3.8
서비스	화물운수	6.6	6.9	7.1	5.9	6.8	5.4	5.3
	여객운수	-4.7	-4.5	-3.1	-1.8	-0.7	-1.2	-2.4
	우편 <sup>3)</sup>	31.3	28.6	26.4	29.5	33.7	37.2	-
	통신 <sup>3)</sup>	125.0	132.7	137.9	91.7	67.1	65.2	-
	소매업	9.7	9.3	8.9	8.3	7.4	7.2	7.6
	음식숙박업	10.1	9.9	9.7	9.4	9.4	9.7	9.4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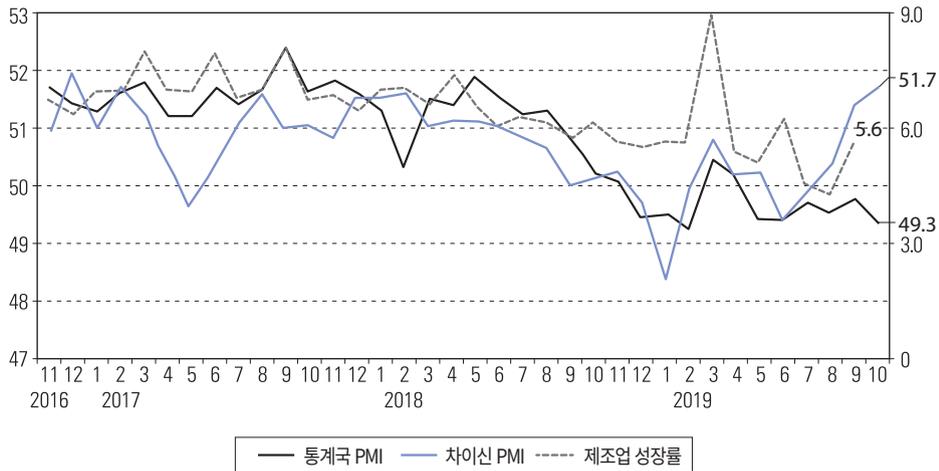
주: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9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조선업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자업종도 일부 증가한 반면, 기계와 자동차업종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
    - 섬유업종은 방직분야의 증가세가 하락한 반면, 화학섬유가 전년동기비 18.6%의 큰 폭 증가
    - 화학업종은 증가하였으나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플라스틱원료가 6.0% 증가하고 에틸렌과 플라스틱제품은 각각 0.2%, 4.5% 증가
    - 철강업종은 3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철, 조강 및 강재가 각각 2.1%, 2.2%, 6.9% 증가로 상반기에 비해 하락
    - 기계업종은 3분기에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에는 금속절삭기계, 소형 트랙터 및 발전설비가 각각 17.8%, 18.9%, 24.5% 감소
    - 자동차업종도 수요 감소로 상반기 내내 감소하였으며, 9월에도 6.9% 감소
    - 조선업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에는 50.8%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생산량 증가를 기대
    - 전자업종은 반도체(13.2%), 컴퓨터(12.3%), 에어컨(10.6%), 세탁기(7.6%), 냉장고(3.9%), 휴대폰(3.8%)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컬러TV(-4.0%)는 지속적으로 감소
  - 서비스업은 2019년 상반기에 이어 9월에도 화물운수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여객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
    - 8월의 우편과 통신량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각각 37.2%와 65.2%를 기록
    -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상반기에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9월에도 각각 7.6%, 9.4%로 높은 증가율 기록
-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
-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한 49.3으로 금년 2월 최하위치(49.2)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상태
    -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5포인트나 하락한 50.8을 기록
    - 신규주문지수는 0.9포인트 하락하여 49.6으로 임계치 이하로 하락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여 47.4를 기록

###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종업원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하여 47.3을 기록하여 여전히 비관적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여 50.1을 기록
-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형기업은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기업과 소형기업은 모두 0.9포인트씩 하락
  - 대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9.9를 기록하며 임계치 이하 전환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한 49.0을 기록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7.9를 기록
- 10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1.7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
  - 중국의 제조업 운영 여건이 2017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
  - 생산과 신규주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기업들의 구매활동도 증가
  -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은 더 감소
  - 공급업체의 평균 납기는 늦어졌는데, 이는 일부 환경보호정책의 영향
  - 최종재의 가격은 경쟁적인 시장의 압박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원가부담은 다소 증가
  - 향후 1년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이 특징

## (2) 미국

## □ 9월 미국의 제조업 생산 감소 지속

- 9월 미국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0.9%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 13개 업종 중 8개 업종의 생산이 감소
  - 특히 5월 이후 플러스를 기록해왔던 자동차·부품 부문의 생산증가율이 -5.3%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
  - 이는 9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지속된 제너럴모터스(GM) 파업에 따른 영향으로 GM과 전 미자동차노조(UAW)는 파업사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상태
- 15개월에 걸친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투자가 악화되면서 제조업 생산 둔화가 심화되는 경향

##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2.7	1.6	1.0	-0.6	0.2	-0.6	-0.4	-0.9
식품	3.3	1.6	-0.6	-0.8	1.4	-0.7	-0.8	-0.7
제지	-0.7	-1.8	-4.2	-3.8	-5.0	-5.0	-2.9	-3.3
정유	0.8	-0.7	0.4	-1.3	-1.7	-0.6	-2.2	-1.1
화학	3.7	3.0	-0.2	-0.7	-1.3	-1.5	-0.5	-0.3
플라스틱·고무	0.3	-0.7	-0.7	-2.3	0.4	-3.5	-1.1	-2.4
1차금속	3.8	2.3	2.0	-1.5	-1.4	-0.5	-0.6	-3.4
조립금속	5.6	3.8	1.9	0.2	0.7	0.0	0.4	0.1
기계	5.4	3.8	5.2	-2.0	1.6	-1.6	-1.4	-2.9
컴퓨터·주변기기	8.2	-0.1	-1.7	-0.6	-2.0	-2.7	-0.1	1.0
통신기기	4.2	14.4	13.5	8.4	12.8	10.3	8.1	7.0
반도체·전자부품	8.1	4.4	1.9	0.4	0.9	0.7	0.1	0.4
자동차 및 부품	3.5	-1.3	3.3	-0.5	1.8	4.3	0.6	-5.3
항공우주	-2.2	5.5	1.6	2.8	1.6	2.3	2.8	3.3

자료: 미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9월 미국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 77.9에서 77.5로 0.4%포인트 하락
-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47.8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

### (3) 일본

#### □ 9월 일본 제조업 생산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9월 일본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이는 WSJ나 QUICK 등에서 조사한 시장 예측 결과치인 0.4%를 웃도는 수치

####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1.0	1.6	1.2	0.1	-3.8	0.7	-4.7	1.1
강철·비철금속	0.8	1.2	2.6	-0.9	-4.8	-0.6	-8.3	-3.5
금속제품	0.3	-1.5	0.9	-1.1	-2.3	3.3	-4.5	-1.2
생산기계	4.8	11.9	6.1	3.1	-5.8	-2.6	-13.9	-2.0
일반용·업무용기계	6.4	8.9	4.6	6.1	-8.9	-2.5	-9.1	4.8
전자부품·기기	2.7	0.9	2.2	2.5	-13.3	-10.5	-5.1	-3.5
전기·정보통신기기	0.6	1.3	0.5	0.0	-3.9	-1.6	-7.3	2.9
수송기계	-0.4	0.6	1.3	-2.3	-3.3	8.8	-3.0	3.6
요업·토석제품	0.3	-0.2	2.1	-0.6	-4.5	-2.2	-7.1	-3.7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2.1	-1.1	0.4		-1.1	-2.2	-1.6	
석탄·석유제품	1.0	2.5	0.6	-0.6	1.5	1.3	2.8	-0.2
플라스틱제품	-4.9	-4.5	-4.5	-5.4	6.7	1.2	-1.7	-3.5
펄프·종이·가공품	1.2	1.8	1.0	0.0	-1.5	2.4	-4.7	-0.7
식품·담배	-1.8	-2.1	-1.7	-2.3	-4.8	5.6	-2.1	0.5
기타 제조업	-0.9	0.0	-1.3		0.0	1.3	0.5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 출하지수는 8월보다 1.3% 올라간 102.5를 기록하였으며, 재고와 재고율 지수는 각각 1.6%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증가한 것이 아닌 14개 업종 중 4개 업종의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
- 특히 일반용·업무용기계, 수송기계와 전기·정보통신기기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짐.
- 생산 증가세가 다음 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진행한 제조업 생산예측 조사에 의하면 10월은 생산이 0.6% 증가 예상

#### (4) 유로존<sup>1)</sup>

##### □ 유로존 산업생산 5개월 연속 감소세

- 2019년 8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식음료, 전자부품 및 조선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부진하며 전년동월비 2.7% 감소
  - 정유업종은 코크스오븐제품 생산 부진(-19.7%)으로 인해 0.7% 감소
  - 화학업종의 경우 화학섬유 및 기타 화학제품 등 세부 업종 전체의 부진으로 인해 2.2% 감소
  - 1차 금속업종은 기타 철강가공제품 부문의 큰 폭 감소(-14.1%)로 인해 4.0% 감소
  - 조립금속업종의 경우 증기발생기가 크게 감소(-24.3%)하여 3.7% 감소
- 반면, 조선업과 전자부품 생산은 증가 실현
  - 전자부품은 기관 부문의 생산 호조(12.8%)로 인해 2.8% 증가
  - 조선업은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의 저조(-6.9%)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의 호조(13.9%)로 5.9% 증가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유럽 주요 산업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전체	3.2	1.2	-0.2	-1.4	-0.9	-2.5	-2.2	-2.7
식음료	1.0	-0.1	1.1	2.1	0.7	1.0	1.5	1.8
섬유	1.8	-2.2	-4.0	-4.4	-4.2	-5.2	-3.1	-2.6
정유	1.9	0.3	-3.1	-3.3	-2.9	-3.7	-2.7	-0.7
화학	1.3	-0.8	-0.8	-1.2	-1.9	-1.5	-1.9	-2.2
고무·플라스틱	4.3	-0.4	-0.5	-2.1	-2.4	-3.3	-3.0	-1.1
1차금속	3.1	0.2	-1.8	-2.9	-2.2	-3.7	-4.2	-4.0
조립금속	4.7	1.2	0.0	-1.8	-2.1	-2.3	-2.1	-3.7
기계	5.8	2.8	1.0	-1.9	-1.8	-2.4	-2.6	-2.9
통신기기	0.8	-0.5	3.3	6.1	7.0	5.6	9.4	-4.0
전자부품	6.8	-0.2	9.9	9.2	16.1	2.7	6.7	2.8
자동차	3.5	-1.1	-7.2	-10.1	-7.4	-9.8	-7.8	-2.9
조선	1.5	8.3	7.3	5.0	12.5	0.9	2.2	5.9

자료 : Eurostat(index. 2015=100).

주 : 2019년 7, 8월은 Eurostat 추정치.

## II

# 국내 실물경제

### 01 생산, 소비, 투자

□ 2019년 3분기 GDP 소폭 증가, 소비·투자 증가세 둔화, 건설 투자 감소

- 지난 3분기 경제는 민간 및 정부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기비 0.4% 증가
  -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기비 0.1%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면서 0.5% 증가,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하여 5.2% 감소
- 지난 9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등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0.4% 감소
  -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8.0%), 자동차(5.1%) 등이 증가하면서 2.0% 증가, 소매판매는 비내구재(-2.5%), 준내구재(-3.6%), 내구재(-0.1%)가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2.2% 감소, 투자는 기계류(7.0%)가 증가한 영향으로 2.9%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비 0.4% 상승

##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7**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7** (0.5**)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0** (-5.2**)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9 (-0.7)	0.7* (1.6*)	0.0* (0.2*)	0.5*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8* (1.9*)	-2.7 (0.0)	0.6 (2.8)	-3.3* (-1.8*)	0.4* (2.0*)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7* (1.8*)	-2.8 (0.1)	1.0 (2.8)	-3.3* (-2.0*)	0.2* (2.1*)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9*)	0.1 (-1.1)	1.5 (1.2)	2.4* (1.1*)	1.0* (-1.2*)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4* (0.2*)	1.2 (-1.6)	-0.3 (-0.9)	4.1* (3.9*)	3.3* (-2.2*)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3.2* (1.9*)	-9.3 (0.1)	-4.9 (2.2)	-2.9* (1.6*)	-1.6* (2.9*)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6* (-4.1*)	-4.1 (1.5)	-8.1 (-4.6)	-7.4* (0.9*)	-7.4* (-2.7*)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7.2 101.1	109.4* 100.5*	109.8 99.4	110.4 99.4	111.1* 99.4*	110.6 99.4	110.7* 99.3*	111.1* 99.5*	111.4* 99.5*
선형종합지수(2015=100) [선형지수 순환변동치]	109.3 101.2	112.8* 100.2*	113.8 99.0	114.6 98.9	115.0* 98.4*	114.7 98.7	114.7* 98.4*	114.9* 98.4*	115.4* 98.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9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3% 증가

- 9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여파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1.7% → 1.3%)
  - 제조업은 감소폭이 재차 확대(-0.5% → -2.5%)
  - 반면에 농림·어업은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3.7% → 4.2%)되고, SOC·기타서비스업도 전월과 비슷한 증가율 수준(2.0% → 1.9%)
  - 건설업은 5개월 만에 다시 감소(1.3% → -1.9%)하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도 증가세가 둔화(0.9%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5.3% → -5.0%)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6% → -5.5%) 등에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322	27,408	27,383	27,358	27,404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0	1.0	1.1	1.7	1.3
농림·어업	0.5	4.8	9.6	1.2	3.9	1.1	1.6	3.7	3.7	4.2
제조업	-0.4	-1.2	-3.1	-1.4	-1.7	-1.6	-1.5	-2.1	-0.5	-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6	0.5	1.1	1.4	1.8	1.5	1.6	1.6	2.0	1.9
건설업	6.4	2.3	-0.4	0.0	0.0	0.3	1.1	0.6	1.3	-1.9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1.0	0.4	0.2	0.9	0.3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0.4	1.1	-0.4	-1.4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1	0.7	2.6	2.7	3.9	2.7	2.5	3.3	4.0	4.5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4.0	4.0	3.1	3.4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8.3% → 8.0%)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 → 7.5%),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4% → 4.3%) 등 다수 업종에서 비교적 견실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4.0% → 4.5%, 2002.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4%로 전월보다 상승

### 03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보합

- 10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전월비 -0.1%) 등이 하락한 반면, 교통(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 식료품·비주류음료(0.2%),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보합

#### 소비자물가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1.9	1.5	0.5 (-0.4)	0.7 (0.4)	0.0 (-0.1)	0.7 (0.2)	0.7 (-0.2)	0.6 (-0.3)	0.0 (0.2)	-0.4 (0.4)	0.0 (0.2)
근원물가	1.5	1.2	1.1 (0.4)	0.9 (0.3)	0.8 (-0.1)	0.8 (0.1)	0.9 (-0.1)	1.0 (-0.2)	0.9 (0.1)	0.6 (0.0)	0.8 (0.2)

자료 : 통계청.

주 :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9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축소, 11월 초(11.1~11.8일)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이 지난달보다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2019.8월 +3조 5천억 원 → 9월 +4조 9천억 원, 대기업 +1천억 원, 중소기업 +4조 8천억 원)
  - 대기업 대출은 대출 일시상환이나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감소 경향이 있는 분기 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증가세로 전환된 모습이며,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줄어든 모습이지만, 추석자금 수요,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노력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 지속
  - CP는 전월에 비하여 상당폭 줄어들면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고, 회사채는 지난달 대비 소폭 늘어나며 순발행 규모가 확대된 모습,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 대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가율, 조원

	2017		2018		2019				19. 9월 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9월	연중	7월	8월	9월	
은행 원화 대출	38.1	5.0	42.7	4.2	37.7	1.5	3.5	4.9	861.8
(대기업)	-3.5	-0.9	5.0	-1.2	-2.1	-1.1	-1.9	0.1	152.6
(중소기업)	41.6	5.9	37.6	5.4	39.8	2.6	5.4	4.8	709.2
<개인사업자>	27.8	3.4	25.0	2.0	18.5	2.0	2.7	2.4	332.3
회사채 순발행	-3.5	0.3	5.2	2.0	13.5	3.4	0.1	0.6	..
CP 순발행	2.3	-0.1	0.8	-2.2	1.4	1.3	-0.1	-1.3	19.7
주식발행	13.9	0.7	10.1	0.6	4.2	0.6	0.5	0.1	..
은행 가계대출	58.9	4.9	60.8	5.1	39.4	5.8	7.4	4.8	867.0
주택담보대출	37.2	3.3	37.8	3.7	30.7	3.7	4.6	4.0	638.6
기타 대출	21.6	1.7	22.6	1.4	8.7	2.2	2.8	0.9	227.2

자료 : 한국은행.

### 비 소폭 축소된 모습

- 9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전월에 비하여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2019.8월 +7조 4천억 원 → 9월 +4조 8천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다소 줄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된 모습이며, 기타 대출은 추석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비 상당폭 줄어들면서 증가규모가 축소된 모습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 역시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합의 기대에 따른 세계 경기 반등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채권 투자심리 악화,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상당폭 상승한 모습(11.1일 1.47% → 11.8일 1.52%, 0.05%포인트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합의 기대 확대에 따른 위안화 강세 및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인하여 상당폭 하락한 모습(11.1일 1,165.6원 → 11.8일 1,157.5원, 8.1원 하락)

###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17	2018			2019				
		2/4	3/4	4/4	1/4	2/4	3/4	10월	11.8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47	1.52
회사채(3년, 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7	2.02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44	1.52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5	1.65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63.4	1,157.5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74.1	1,062.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7% 감소한 468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작년 10월 수출 호조(549억 달러)의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
  - 수입은 원유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다, 설비투자 감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의 수입도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
  -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5.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9% 하락한 데다 도입물량도 17.6% 감소하면서, 금액으로는 32.4%나 감소한 52억 달러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수출	6,049 (5.4)	1,327 (-8.5)	1,386 (-8.6)	1,349 (-12.2)	461 (-11.1)	441 (-13.9)	447 (-11.7)	468 (-14.7)	4,529 (-10.3)
수입	5,352 (11.9)	1,237 (-6.6)	1,288 (-3.3)	1,249 (-4.1)	437 (-2.6)	425 (-4.3)	387 (-5.6)	414 (-14.6)	4,188 (-5.8)
무역수지	697	90	98	99	23	16	60	54	341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0월 실적은 잠정치.

### Ⅲ

## 주요 산업별 동향

### 01 제조업

#### (1) 총괄

□ 9월 중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2% 증가, 전월비 2.1% 증가

- 제조업생산은 의료정밀광학(-22.4%), 전자부품(-7.5%), 자동차(-3.2%) 등 업종에서 크게 줄어 들었지만, 기타운송장비(20.8%), 반도체(9.7%), 기계장비(3.2%)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소폭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8%)는 전년동월비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중공업(0.4%) 역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경공업(-0.9%)은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전월비 기준으로는 통신·방송장비(-16.4%), 비금속광물(-6.8%), 반도체(-1.7%) 등에서 줄어든 반면 기계·장비(8.0%), 자동차(5.1%), 전자부품(4.1%) 등의 업종에서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2.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식료품, 담배 등의 업종에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기타운송장비,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2.2% 감소, 전월비 보합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7%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하였고, 재고-출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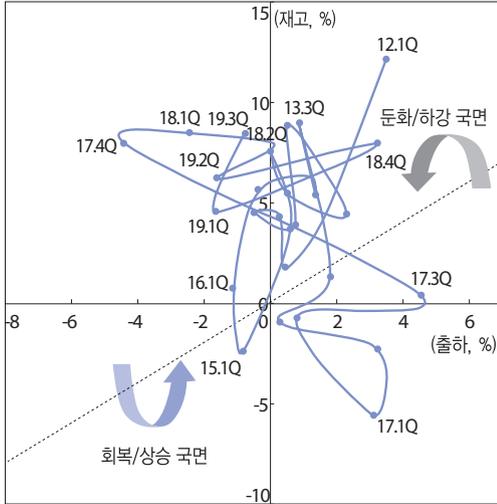
	가중치	2017	2018	2019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4.7	106.1	106.2	104.4	108.9	101.7	10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0.7	-0.8	0.6	-3.3	0.4	2.0
제조업(원지수)	9,577	104.6	105.9	106.6	104.5	109.1	101.3	103.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0.8	-0.7	1.0	-3.3	0.2	2.1
섬유	160.6	-3.1	-6.7	-7.5	-3.7	-2.7	-6.8	-1.4	2.4
화학	847.5	3.5	2.3	-6.1	-2.0	-1.2	-3.0	-1.5	1.6
철강	620.1	1.6	-3.0	-2.1	-2.7	-1.1	-4.9	-2.0	2.5
반도체	484.4	10.9	20.2	7.9	8.3	3.3	12.4	9.7	-1.7
컴퓨터, 주변장치	71.0	-10.2	-7.7	-6.8	-5.7	-2.6	-23.6	12.3	29.1
통신, 방송장비	354.9	-9.7	-7.1	-8.4	3.1	-22.7	22.0	7.9	-16.4
의료, 정밀, 광학	148.1	19.1	15.1	-11.5	-20.5	-13.3	-25.8	-22.4	5.6
기계, 장비	803.6	13.5	-2.9	-6.8	-1.9	-4.5	-4.1	3.2	8.0
자동차	1,076.4	-2.7	-1.4	1.7	-0.5	14.1	-12.5	-3.2	5.1
조선	454.8	-29.2	-13.5	22.2	24.2	26.6	17.6	28.2	2.7
중공업	-	2.6	2.2	-0.8	-0.7	0.7	-2.9	0.4	0.6
경공업	-	0.1	-3.1	-0.9	-1.1	2.4	-5.1	-0.9	-0.5
제조업ICT	-	7.1	11.3	0.9	1.1	-3.2	2.7	3.8	2.2

자료 : 통계청(\*는 잠정치).

- 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2.7% → -0.8%,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되었으나, 재고 증가폭(6.1% → 8.5%)은 확대된 모습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6%로 전월에 비하여 2.2%포인트 상승한 모습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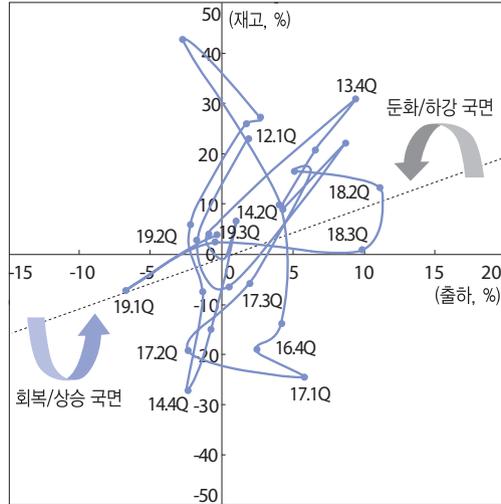
(2012년 1분기~2019년 3분기)



자료: 통계청.

### 제조업 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2019년 3분기)



자료: 통계청.

#### □ 수출, 선박류와 컴퓨터 제외한 11개 주력품목 감소

-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D램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디스플레이는 LCD 수출 부진으로, 그리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부진과 단가 하락, 정정보수 증가 등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세 지속
  - 반도체는 D램 가격의 대폭 하락과 작년 10월 역대 2위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가격 하락과 출하량 감소 등 영향으로 큰 폭 감소
  - 철강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단가 약세 지속,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의 강관류 수입 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는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수출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폭 감소
- 반면, 선박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시황 개선에 따른 수주 선박의 본격 인도로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컴퓨터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로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자동차	-1.9	4.7	9.0	10.3	21.5	4.6	3.9	-2.3	6.8
자동차부품	-0.1	3.0	-7.2	-0.6	1.4	-5.3	2.1	-6.3	-2.3
선박류	-49.6	-24.6	49.3	39.2	-7.2	168.6	30.9	25.7	12.9
일반기계	10.2	0.5	0.4	-4.3	-5.0	-6.2	-1.5	-12.1	-2.4
철강	-0.7	-1.8	-8.1	-17.5	-21.8	-19.9	-9.1	-11.8	-9.7
석유화학	11.9	-10.3	-15.9	-16.4	-12.5	-19.5	-17.6	-22.5	-15.1
석유제품	32.3	-4.2	-12.7	-14.8	-9.6	-15.9	-18.4	-26.2	-12.8
섬유	2.5	-7.0	-8.5	-8.6	-6.7	-13.2	-5.8	-6.8	-7.9
가전	-18.3	-6.1	-2.3	-1.4	2.2	-7.1	0.3	-6.5	-3.7
무선통신기기	-22.7	-27.2	-21.0	-16.9	-30.6	-18.9	1.0	-6.7	-20.0
컴퓨터	17.2	-33.7	-36.5	-24.7	-24.1	-31.7	-18.5	7.7	-28.1
반도체	29.4	-21.4	-23.6	-30.3	-28.1	-30.7	-31.6	-32.1	-26.0
디스플레이	-9.9	-11.6	-13.8	-19.9	-18.3	-23.7	-17.2	-22.5	-1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0월 실적은 추정치.

(2) 자동차

□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에 따른 내수 및 수출 침체 지속

- 10월 내수는 수입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차 판매 부진으로 2.1% 감소
  - 국내생산차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신차효과를 본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판매감소를 기록하면서 3.4% 감소
  - 수입차는 불매운동으로 판매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업체와는 달리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가 신차 투입으로 크게 증가하여 내수 부진 속에서 6.2% 증가
- 10월 수출은 외자계 업체들의 큰 폭 부진으로 3월 이후 6개월간 이어져온 증가세가 3.7% 감소로 반전

##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9	-1.4	2.5	1.7	-0.5	14.1	-12.5	-3.2	-
	생산(전기비)	-	-	-4.2	0.6	2.4	6.5	-5.3	5.1	-
	출하	-2.7	-0.7	3.9	1.4	-0.2	7.7	-7.0	-1.6	-
	재고	18.6	17.5	14.5	16.0	14.6	20.9	13.6	14.6	-
	가동률	-6.6	3.0	7.3	4.8	3.3	18.3	-9.4	1.1	-
	내수판매동향	-1.7	1.1	-3.0	-4.3	-1.8	-2.5	-6.3	4.1	-2.1
교역 동향	수출	-1.4	-1.3	4.1	3.0	6.1	13.6	0.7	3.3	-3.7
	수입	2.9	6.3	-13.3	-11.5	14.0	14.4	1.0	34.1	-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 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 판매 동향은 완성차 기준.

- 완성차는 외자계 업체들이 모기업의 생산전략에 따라 수출물량을 줄이면서 큰 폭으로 감소 (-10.2%)하였으나 수출차종은 단가가 높은 SUV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차로 변화하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2.3%의 소폭 감소
- 부품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에 따른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현지생산 감소로 우리 부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6.3% 감소
- 9월 생산 및 출하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수출 물량 감소로 감소세 지속
  - 가동률의 경우 외자계 업체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수요부진 여파로 완성차, 부품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3) 조선

□ 고부가 상선의 세계시장 주도로 모든 지표 상승세 지속

-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7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의 부진을 반영하여 IMF

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다시 0.3%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해운 및 선박발주 시장도 침체 상태 지속

- 전체 발주량이 약 40.0% 감소한 가운데 선종별 수주량도 대부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우리의 주력선종에서도 VLCC 42.0%, LNG운반선 36.0% 등의 감소를 보여 국내 수주잔량은 작년 말 대비 약 11.9% 감소
- 9월 말 기준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전년동기비 약 46.0% 감소한 약 530만 CGT로 자국발주 비중이 높은 중국의 600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건조량은 760만 CGT를 기록하여 26.7% 증가
- 선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클락슨(Clarkson)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9월 말 기준 130을 기록하였고, 해운의 BDI 지수는 11월 4일 기준 1,675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HR 지수도 다소 하락한 789를 기록
-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의 인도가 진행되면서 10월 수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수입은 국적취득 조건 편의치적선의 반입이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10월의 수출은 해외 수주 군함 및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집중 수주했던 LNG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제품운반선, LPG운반선 등이 지속

###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2	-28.2	10.4	22.2	24.2	26.6	17.6	28.2	-
	생산(전기비)	-	-	-0.7	10.5	3.1	3.7	-2.0	2.7	-
	출하	-28.5	-28.5	10.2	20.6	21.8	24.1	15.7	25.5	-
	가동률	-21.7	-21.7	34.6	43.9	41.6	44.8	36.2	43.8	-
교역 동향	수출	23.1	23.1	-24.6	49.4	39.2	-6.5	168.6	31.0	25.7
	수입	-24.4	-24.4	-12.0	8.6	-20.4	-50.7	-26.7	166.9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8월 및 9월 생산 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 지속

- 9월의 수입은 오만 등으로부터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LNG운반선 등의 선박 부품 및 엔진의 반입이 105% 증가한 데다 중고 어선 수입이 늘어나면서 약 167% 증가로 전환

#### (4) 일반기계

□ 생산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수출은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

- 9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비 3.2%의 증가로 전환되었고, 가동률도 7.1% 상승
  -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의 투자가 7.0%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역시 토목 및 주택건축에서 늘어 24.7% 증가
  - 수요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의 국내 기계수주는 4.6% 증가, 기타운송장비 20.8%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2018. 10월 일반기계수출 역대 최고 기록, 49억 9천만 달러, +51.7%)와 일반기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 및 미국의 신규투자 감소로 인한 기계수요 감소로 12.1% 감소
  -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투자에 따른 관련 기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미국의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 및 내부 운영효율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 구매 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이 6.8% 감소
  - 독일 제조업 불황(독일 9월 PMI는 41.4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영향으로 인한 유럽의 제조업 경기 둔화 지속으로 기계수요가 줄어 유럽으로의 수출이 18.8% 감소

\*유럽 제조업 PMI : (2019.1) 50.5→(3) 47.5→(5) 47.7→(7) 46.5→(9) 45.7→(10) 45.7
- 9월 수입은 주요 부품의 수요 확대로 0.2% 증가로 전환
  - 9월 수입비중 22.5%를 차지하는 원동기 및 펌프(9%)를 비롯하여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61.3%), 식품가공포장기계(34.9%) 등의 수입 증가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5	-2.9	-11.4	-6.8	-1.9	-4.5	-4.1	3.2	-
	생산(전기비)	-	-	-4.1	-0.6	4.0	1.7	1.9	8.0	-
	출하	13.7	-3.5	-10.8	-7.0	-3.9	-7.0	-6.7	2.5	-
	재고	9.4	4.4	3.5	3.5	12.4	8.5	7.9	12.4	-
	가동률	4.3	-0.5	-3.9	0.2	2.1	1.8	-2.3	7.1	-
교역 동향	수출	10.2	10.2	0.5	0.4	-4.3	-5.0	-6.3	-1.5	-12.1
	수입	10.0	-0.8	-6.1	-4.0	-3.5	-5.5	-4.7	0.2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5) 철강

□ 생산의 위축세와 수출 부진 지속

- 9월 철강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세, 재고의 증가세 지속
  - 전기로강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증가하던 전로강 생산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조강생산 역시 감소로 전환
    - 9월 조강생산 증가율(% , 전년동월비) : 조강합계 -2.5%, 전로 -1.5%, 전기로 -4.8%
  -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봉형강류 및 특수강 제품의 판매 부진, 철근 유통가격 방어를 위한 감소 등이 전기로강 생산 감소에 영향
    - \*9월 생산량 증가율(% , 전년동월비) : 봉강 -7.1%, 형강 -6.2%, 철근 -9.4%, 냉연강판 -4.3%
- 10월 철강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11.8% 감소
  - 국제 철강가격 하락,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수입수요 부진 및 미국, EU 등에서의 수입규제 영향이 감소의 주요 요인
    - \*철강재 수출물량(천 톤) : (2018.10) 2,401→(2019.10) 2,433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 (2018.10) 972→(2019.1) 919 →(2019.10) 853

##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6	-3.0	-2.4	-2.1	-2.7	-1.1	-4.9	-2.0	-
	생산(전기비)	-	-	0.8	-1.2	-0.4	1.2	-4.5	2.5	-
	출하	0.3	-2.2	-1.3	-3.8	-3.5	-1.7	-3.7	-5.4	-
	재고	15.4	12.3	8.3	14.8	14.8	15.5	11.3	14.8	-
	가동률	1.6	-3.4	-1.2	-0.5	-1.4	0.2	-3.6	-1.1	-
교역 동향	수출	19.9	-0.7	-1.8	-8.1	-17.6	-21.8	-19.9	-9.2	-11.8
	수입	9.5	-0.2	4.2	3.8	-1.3	10.3	-10.5	-3.0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주요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10.1~10.25일 기준, 전년동기비, %) : 중국 -7.3, EU -15.3, 중남미 -36.0, 인도 -24.9, 아세안 1.4

- 9월 철강 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3.0% 감소하였으나 감소는 주로 원부자재, 기타 철강재에서 나타나고 철강관 및 강판과 같은 철강재 수입은 증가

- 강판 수입의 큰 폭 증가는 열연강판과 도금강판의 대일본 수입과 냉연강판의 대중국 수입 증가에서 비롯
- 반면 최근 증가세를 이어오던 형강 수입은 국내 H형강 유통가격 약세로 인해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33% 감소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전년동월비, %) : 철강관 10.1, 강판 및 강선 16.2, 철근 59.3, 합금철선철교철 -20.7%, 형강 -33.3

### (6) 정유

□ 국제유가 하락 및 글로벌 시황 악화로 수출 감소 추세 지속

- 9월 석유제품 생산은 전년동월비 2.5% 증가하였으나 출하(-2.8%) 감소로 재고(18.8%)가 급격히 확대

- 내수량의 경우 휘발유(-15.9%), 경유(-20.0%), 나프타(-3.2%), 병커C유(-42.2%), 항공유(-14.7%), 윤활유(-5.6) 및 아스팔트(-4.4%) 등 전반적 석유제품의 소비가 전년동월비 5.5% 감소
- 수출량의 경우 항공유(11.7%)와 LPG(48.8%)를 제외한 대다수 석유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0.7% 감소
  - \*전년동월비(%) : 휘발유(-2.8%), 경유(-2.3%), 나프타(-0.7%), 병커C유(-10.8%), 아스팔트(-16.9), 윤활유(-34.3%)
- 10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26.2% 감소
  - 수출단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20.9% 하락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 (2018.10) 79.4(23.9%)→(2019.10) 59.4(-20.0%)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 (2018.10) 90.4→(2019.10) 71.5(-20.9%)
  - 아시아 역내 정제설비 증설과 국내 정기보수 증가 등 수출물량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속
  -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그 외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감소
    - \*전년동월비 수출액 증가율(%) : 중국(-6.5), 일본(-37.2), 아세안(6.5), 미국(-16.0) 감소
    -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율(억 달러) : (2018.10) 45.3(74.8%)→(2019.10) 33.4(-26.2%) 하락

###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1	0.8	3.0	0.3	2.9	0.1	6.1	2.5	-
	생산(전기비)	-	-	-2.7	3.5	1.8	0.8	4.0	-2.3	-
	출하	3.4	0.0	5.0	0.0	1.3	0.4	6.2	-2.8	-
	재고	0.9	14.6	-0.3	2.7	18.8	2.7	2.2	18.8	-
	가동률	2.6	0.6	3.2	0.1	1.8	-1.0	5.1	1.5	-
교역 동향	수출	32.4	32.3	-4.2	-12.8	-14.8	-9.6	-15.9	-18.4	-26.2
	수입	26.0	41.8	-23.0	-11.7	-19.1	-18.7	-10.9	-27.7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 :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 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7) 화학

□ 생산 감소 불구 출하량이 일시 증가했으나,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세 지속

- 9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소폭 감소(-1.5%)했으나 출하량이 증가(2.3%)하며 재고량이 소폭 감소(-0.3%)
  - 나프타 가격 하락과 NCC 설비의 정기보수 종료에 따라 에틸렌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가격 하락세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피격되었으나 빠르게 정상가동되며 재고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
  - 다운스트림 제품군(PE, PP, PS)의 가격은 에틸렌 가격과 동행성이 높아 하락세가 지속되는 특징
  - 중국 연휴로 생산시설 가동률 하락 및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제품 가격 하락을 촉진
-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및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지속으로 수출액 감소세 지속

### 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5	2.3	-3.1	-6.1	-2.0	-1.2	-3.0	-1.5	-
	생산(전기비)	-	-	-1.4	-2.5	4.4	7.4	-1.4	1.6	-
	출하	4.2	1.3	-0.8	-2.9	3.4	4.2	3.4	2.3	-
	재고	1.1	17.7	16.0	7.5	-0.3	5.0	2.6	-0.3	-
	가동률	1.4	-1.9	-3.8	-8.1	-2.4	-1.1	-4.4	-1.4	-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10.3	-15.8	-16.5	-12.5	-19.5	-17.6	-22.6
	수입	15.7	5.5	-8.6	-2.0	-17.5	-13.9	-21.2	-17.4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 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10월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톤당 수출단가는 1.1달러로 전년동월비 22% 하락하며 수출액 감소를 주도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수요 및 가격이 하락
- 중국(-24.2%)의 경우 생산시설의 가동률 상승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
- EU(35.7%)의 경우 미국산 에탄 기반 제품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

## (8) 섬유

### □ 내수 및 수출 부진 장기화

- 섬유산업은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 지속으로 업황 침체 장기화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가 8월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추석 특수에도 불구하고 9월 전년동월비 7.4%의 큰 폭 감소하며 내수 부진을 반영
    - \*의류소매판매액 증가율(경상기준 전년동월비, %): (1월) 8.2 → (3월) 2.6 → (5월) 5.3 → (6월) 2.6 → (7월) -2.7 → (8월) 0.7 → (9월) -7.4
  - 의류 유통은 모바일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소매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의류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온라인쇼핑몰 거래 증가율(전년동월비, %): (4월) 7.7 → (5월) 11.6 → (6월) 4.5 → (7월) 10.7 → (8월) 4.5 → (9월) 13.5
  - 내수 및 수출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수입 물량으로 충당되면서 국내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품목별로는 9월 기준 전체 섬유소재 생산이 6.6% 감소한 가운데, 면사 등 원사 생산이 전년동월비 6.4% 감소, 편조물이 15.1% 감소, 염색가공업이 4.3% 감소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직물류가 3.9% 증가세 전환
    -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다운스트림의 수요 부진으로 화섬 생산이 14.3% 감소하며 장기적 생산 감소 지속

##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	-4.5	-7.0	-8.0	-6.7	-5.3	-8.2	-6.6	-
	생산(전기비)	-	-	-6.6	-9.7	-6.7	-6.8	-7.5	-5.9	-
	출하	-1.3	-4.0	-3.7	-6.5	-7.2	-3.2	-11.3	-7.1	-
	재고	0.8	4.4	4.6	2.3	6.3	1.9	4.7	6.3	-
	가동률	-1.8	-2.6	-4.4	-3.4	0.1	2.1	-3.1	1.5	-
교역 동향	수출	-0.5	2.5	-7.0	-8.5	-8.5	-6.6	-13.2	-5.8	-6.8
	수입	4.7	12.8	3.1	-1.6	8.6	10.7	5.7	9.7	-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의류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10.6% 감소한 가운데, 봉제의복이 9.6% 감소, 편조의복이 17.9% 감소, 의복 액세서리 생산이 10.0% 감소로 생산 위축 심화

- 10월 섬유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 미국의 대중 수입 규제 강화, 주력제품의 경쟁 심화 및 수출단가 약세 등으로 전년동월비 6.8% 감소

- 미국이 9월 1일 옷·신발·필기구 등 중국산 생필품 소비재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대중의 류용 섬유소재 수출 여건 더욱 악화

- 수출단가가 글로벌 수요 부진 및 경쟁 심화로 약세를 이어가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편직물, 화섬장섬유직물 등 주력 품목의 수요 둔화가 수출 감소 견인

- 수출단가는 경쟁 심화 및 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지속

\*섬유 수출단가(달러/kg, %): (2018.10) 4.77 → (2019.10e) 4.50(-5.7)

- 지역별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의류 수요 위축으로 대미 수출이 14.6%, 대EU 수출이 14.8% 및 대중 수출이 10.5% 감소한 반면, 대아세안 수출이 2.5% 증가

\*9.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아세안) 3.5(2.5), (중국) 1.2(-10.5), (미국) 0.9(-14.6), (EU) 0.9(-14.8)

(9) 가전

□ 수출 부진으로 생산 감소세 지속

- 9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비 4.5%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는 10.8% 증가
  - 생활가전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활가전 생산은 2.2% 증가하였으나, 수출과 판매 부진으로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생산은 각각 18.2%, 9.1% 감소
  - 생산 감소와 11월 대형 판매행사 기간의 영향으로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재고가 각각 26.5%, 25.6% 감소하여, 전체 가전 재고는 18.8% 감소
  -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가동률은 판매 부진으로 각각 1.4%, 7.8% 하락하였으나 생활가전 신제품 판매 호조로 생활가전 가동률이 8.5% 상승하여, 전체 가전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1.3% 상승
- 10월 가전 수출은 전년동월비 6.6% 감소하여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 국내기업 프리미엄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국 세이프가드 쿼터(대형세탁기) 소진,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수출은 부진
  - \*9월 기준 대형세탁기 수출은 전년동월비 20.4% 감소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2.6	-6.3	-5.0	-8.4	-4.2	-16.6	-4.5	-
	생산(전기비)	-	-	-0.2	-2.8	-5.8	-4.1	-11.4	10.8	-
	출하	-6.1	-3.5	-4.5	-3.4	-8.2	-4.2	-8.5	-11.7	-
	재고	2.7	-6.1	-4.7	-11.4	-19.4	-13.1	-26.0	-18.8	-
	가동률	-4.2	6.3	-2.2	-0.2	-2.1	2.5	-10.2	1.3	-
교역 동향	수출	-22.1	-18.3	-6.1	-2.2	-1.4	2.2	-7.1	0.4	-6.6
	수입	16.3	7.7	3.0	0.5	1.9	3.0	1.4	1.2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 전구조명장치임.

-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수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9월 수입은 진공청소기, 대형세탁기, 대형냉장고 역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난방·전열기, 소형냉장고 등 중저가 제품 수입 감소로 1.2% 증가에 머물러 수입 증가세 둔화가 지속
- \*수입 증가 둔화로 9월 가전 무역수지는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

## (10) 무선통신기기

### □ 수출은 다시 감소 전환, 수입은 큰 폭 증가

- 9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휴대폰부품 수출 및 내수 확대 등에 힘입으면서 전년동월비 7.9% 증가
- 그러나 신규 5G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완제품의 해외생산 확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출하는 8.4% 감소
- 9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이동통신사들의 5G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확대 등에 따른 5G 신규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7	-7.1	-16.4	-8.4	3.1	-22.7	22.0	7.9	-
	생산(전기비)	-	-	-11.8	18.9	16.0	-9.4	51.8	-16.4	-
	출하	-10.6	-9.1	-11.4	-9.3	-12.1	-35.2	8.3	-11.3	-
	재고	14.0	-8.4	-5.4	-10.0	16.0	-13.7	-10.1	16.0	-
	가동률	-3.2	28.0	-20.3	-12.9	2.6	-26.6	21.5	9.9	-
교역 동향	수출	-25.5	-22.7	-27.2	-21.0	-16.9	-30.6	-18.9	1.1	-6.7
	수입	0.4	-6.4	-0.6	22.5	29.2	17.6	28.5	44.4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회, KITA.net.

주 :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 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 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9월 스마트폰 시장(가입자 회선 수 기준)은 번호이동이 전년동월비 0.3% 감소했지만, 신규가입이 52.6%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17.5% 증가
- 10월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부품이 증가했지만 세계시장 침체와 국내 휴대폰의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6.7% 감소
  - 국내외 기업의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5G폰, 폴더블폰 등) 생산 확대로 휴대폰부품 수출이 증가했지만, 국내업체들의 휴대폰 완제품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10월 휴대폰 수출규모는 전년동월비 27% 감소한 4억 4천만 달러인 반면, 휴대폰부품은 8억 9천만 달러로 8.3% 증가
  - 9월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전년동월비 44.4%의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5G 전국망 구축으로 전월에 이어 무선교환기·중계기(90.7%) 수입이 확대되고 휴대폰(152.8%) 수입도 급증한 데 기인
  - 한편, 휴대폰(부품 포함) 무역수지 흑자는 2008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 2019년 9월까지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적자로 전환될 전망
  - \*휴대폰(부품 포함) 해외생산 확대로 무선통신기기의 무역수지는 2008년 약 307억 달러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7억 달러로 축소된 상황

## (11) 반도체

### □ 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9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9.7% 증가
  - PC, 스마트폰 등 주요 수요산업에서 채용되는 반도체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대
  - 수율 향상 및 미세공정 전환 영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며 생산 및 출하는 지속적으로 성장
- 반도체 수출 감소는 급격하게 하락한 단가에 기인

##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0.9	20.2	5.8	7.9	8.3	3.3	12.4	9.7	-
	생산(전기비)	-	-	-2.4	11.0	4.9	0.3	0.4	-1.7	-
	출하	7.9	18.6	0.1	7.0	15.2	16.9	14.6	14.6	-
	재고	37.3	2.3	-9.2	10.8	18.9	22.8	21.5	18.9	-
	가동률	-2.1	3.0	-13.7	-5.7	0.9	-4.4	4.0	3.1	-
교역 동향	수출	57.4	29.4	-21.3	-23.6	-30.2	-28.1	-30.7	-31.6	-32.1
	수입	12.5	8.6	2.4	20.8	8.5	15.1	1.5	8.8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전년동월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1.6% 감소

\*2019년 9월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비 41.4% 감소

● 9월 반도체 대중국 수출은 36.6% 감소, 대베트남 수출은 6.7% 증가

-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전화기(스마트폰 포함), 통신기기 등 첨단기기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기기 완성품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 감소, 베트남 수출 증가

### (12) 디스플레이

□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 생산 부진 지속

● 9월 생산은 가격하락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5% 감소

- 중국의 생산 능력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가동률 하락 및 생산 감소

- 단가의 경우 계절적 불황기에서 벗어나면서 전년동월비 하락하였지만 전월비 상승 전환

\*LCD TV(55인치) 단가(달러) : (2018.10) 154 → (2019.10 추정) 102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0.4	1.5	-13.3	-9.8	-11.9	-7.0	-16.9	-7.5	-
	생산(전기비)	-	-	-6.3	2.7	3.7	2.6	-2.4	3.3	-
	출하	8.9	1.2	-12.3	-11.3	-13.2	-13.7	-18.1	-8.6	-
	재고	-14.0	19.7	-4.8	-5.7	-20.7	-16.5	-13.6	-20.7	-
	가동률	6.3	-2.8	-8.7	-5.9	-6.5	-7.0	-11.2	-2.3	-
교역 동향	수출	9.0	-9.9	-11.6	-13.8	-19.9	-18.3	-23.6	-17.1	-22.5
	수입	69.3	1.1	6.4	-15.2	-13.1	-14.7	-18.4	-3.6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중국 LCD 생산능력 (1,000m<sup>2</sup>) : (2018) 119,446 → (2019) 147,872

● 10월 수출은 LCD, OLED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22.5% 감소

- LCD는 지속적 가격 하락과 OLED로의 공정 전환으로 전년동월비 38.4% 급감, 2017년 7월 이후 지속적 감소

- OLED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신제품 발매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5.3% 감소

\*모바일용 OLED 평균가격(달러) : (2018.4분기) 55 → (2019.4분기 추정) 47

- OLED로의 공정 전환에 따라 OLED 비중 확대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 41.7(2018) → 42.7(2019.1) → 58.8(2019.10)

-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가격 하락으로 모두 두 자릿대 감소

\*주요 수출지역별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 : (아세안) 7.1(-11.2), (중국) 6.0(-28.3), (EU) 0.7(-32.8), (중남미) 0.5(-28.3)

## (1) 생산

## □ 9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1.0% 증가

- 9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업,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정보통신, 금융·보험 실적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0% 증가(전월비로는 1.2%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실적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2.5% 증가(전월비로는 0.4% 증가)
  - \*본고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9.4%)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도매업(-0.2%), 소매업(-1.4%) 실적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0.1% 감소
- 운수·창고업도 수상운송업(2.4%)이 증가했으나 항공운송업(-4.3%), 육상운송업(-0.5%)의 실적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0.4% 감소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역시 비알코올 음료주점업(4.9%), 기관구내식당업(3.5%)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식 음식점업(-15.5%), 주점업(-10.4%), 여관업(-7.5%), 한식음식점업(-5.4%), 휴양콘도운영업(-3.4%) 등의 실적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4.3% 감소
  - \*숙박·음식점업은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18년 10월에 전년동월비 증가한 후 2019년 1월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다시 감소세 지속 중
  - \*2019년 4월 이후 숙박업은 플러스 성장했으나 감소세로 전환
  - \*비알코올음료점업은 2015년 7월 이후 증가세 지속 중
  - \*외국식 음식점업은 2017년 4월 이후 감소세 지속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6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 총지수	102.6	104.5	106.7	104.5	108.4	107.6	107.9	108.1	106.9
상승률	2.6	1.9	2.1	1.1	1.4	1.6	1.5	2.4	1.0
전기비	-	-	-	0.3	0.0	0.9	1.2	1.1	-1.2
도·소매	2.6	0.7	3.1	-0.6	-0.1	0.4	-0.3	1.6	-0.1
운수·창고	2.2	1.6	1.5	1.2	-1.3	0.3	-0.2	1.4	-0.4
숙박·음식점	2.3	-1.9	2.1	-1.3	-1.3	-2.5	-2.6	-0.7	-4.3
정보통신	2.5	1.5	-1.9	3.0	3.9	3.3	3.8	2.6	3.5
금융·보험	4.1	5.1	1.5	1.0	1.1	4.4	4.4	5.9	2.7
부동산	0.6	1.2	5.8	-2.9	-1.6	0.3	-0.1	0.8	0.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6	0.2	0.6	1.9	2.4	2.6	2.1	2.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5	4.3	0.7	-0.2	3.0	3.2	3.8	1.9	3.7
교육	0.7	0.0	0.6	-0.8	-0.9	-0.7	-1.2	-1.0	0.3
보건·사회복지	8.1	7.0	0.1	8.4	9.8	5.6	7.2	5.0	4.6
예술·스포츠·여가	2.3	0.2	5.6	2.3	0.3	-0.9	-0.9	2.9	-4.3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3	0.0	-0.6	-2.2	-0.7	-2.6	-4.7	0.4	-3.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1	-2.3	0.7	-1.8	-3.2	0.6	-1.9	2.6	1.5
지식서비스	3.2	2.9	3.1	2.3	3.0	3.2	4.4	3.4	2.5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반면, 정보통신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13.5%)이 크게 감소했으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8.0%), 정보서비스업(7.9%), 우편 및 통신업(5.9%)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비 3.5% 증가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보험업(-0.9%)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금융업(3.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2.1%)이 증가해 전년동월비 2.7% 증가
-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3.6%)의 실적악화가 지속되었으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2.6%)이 증가해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1.9%)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서비스업(7.4%),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 연구개발업(1.6%)이 모두 증가해 전년동월비 2.2%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도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0.7%) 실적악화가 지속되었으나 임대업(부동산 제외, 10.8%), 사업지원서비스업(3.4%) 실적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3.7% 증가
- 교육은 중등교육기관(-1.4%), 학원(-2.7%), 초등교육기관(-0.2%)의 지속적인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2.2%) 실적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0.3% 증가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11.0%), 거주복지시설 운영업(6.6%),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6.9%)의 실적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4.6% 증가  
\*2010년 1월 이후 증가세 지속
-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3%),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6.6%),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2.2%), 스포츠서비스업(-2.2%)이 모두 크게 감소해 전년동월비 4.3% 감소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도 기타 개인서비스업(-5.3%), 협회 및 단체(-1.8%),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3%)이 모두 감소해 전년동월비 3.3% 감소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수도업(-0.6%)의 실적악화가 지속되었으나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4.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1.8%)이 증가해 전년동월비 1.5% 증가

## (2) 고용

□ 9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8만 6천 명(2.0%) 증가

- 9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공공행정·국방, 금융·보험업,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정보통신에서 감소했으나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등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38만 6천 명(2.0%) 증가(전월비로는 5만 1천 명 증가, +0.3%)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17만 명(8.1%) 증가해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
  - \*2018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서비스업종들 중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크며, 2018년 4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0만 명 이상씩 증가
- 또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8만 3천 명, 7.5%), 숙박·음식점업(8만 명, 3.6%), 예술·스포츠·여가(7만 5천 명, 16.9%), 교육(6만 1천 명, 3.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5만 4천 명, 4.2%), 부동산업(3만 명, 5.5%) 등도 전년동월비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2017년 6월 이후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2월

###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6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총취업자 수	18,504	18,722	18,796	18,762	19,173	19,225	19,234	19,191	19,242
증감률	1.7	1.2	0.4	1.3	1.5	1.8	1.5	1.9	2.0
전기비	-	-		-0.6	2.2	0.3	-0.1	-0.2	0.3
도·소매	-1.6	1.1	-1.9	-1.4	-1.0	-1.8	-2.3	-1.4	-1.7
운수·창고	-0.2	-1.5	0.1	-0.3	1.9	1.8	2.1	1.4	1.8
숙박·음식점	4.4	-0.1	-2.0	-0.2	2.5	4.2	4.4	4.7	3.6
정보통신	1.3	-0.1	7.0	9.2	4.2	-0.2	2.4	-2.2	-0.8
금융·보험	0.5	-1.1	5.8	-3.1	-5.7	-5.7	-6.5	-5.3	-5.0
부동산	4.6	11.8	-2.2	3.0	7.2	5.8	5.5	6.4	5.5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4	-0.8	0.4	5.8	3.3	5.6	4.0	5.5	7.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5	-1.2	-4.6	-3.7	-2.4	2.6	0.0	3.4	4.2
공공행정·국방	5.8	5.5	4.9	0.2	-3.6	-5.2	-5.5	-4.6	-5.5
교육	1.5	2.4	-3.2	1.1	3.0	2.6	3.4	1.2	3.3
보건·사회복지	4.5	3.3	6.5	10.4	6.0	7.8	7.0	8.3	8.1
예술·스포츠·여가	-4.8	5.3	3.8	-1.6	10.6	16.9	14.6	18.8	16.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6	-0.2	1.2	0.8	0.5	-1.2	-1.1	-1.7	-0.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7.2	1.6	10.3	8.3	8.3	3.8	7.9	5.2	-2.9
지식서비스	2.7	1.3	2.6	5.1	3.1	3.3	3.2	2.8	3.9

자료 : 통계청.

주 :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증가세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비 급격히 증가해 전고점인 2016년 8월(약 235만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은 2017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7월 이후 증가

- 반면,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6만 4천 명(-1.7%) 감소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도·소매업은 2017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공공행정·국방(-6만 3천 명, -5.5%), 금융·보험업(-4만 3천 명, -5.0%), 협회·수리·개인서비스(-1만 1천 명, -0.9%), 정보통신업(-7천 명, -0.8%)도 전년동월비 감소

\*공공행정·국방은 2019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금융·보험업은 2019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정보통신업은 2018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8월 이후 감소세 전환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26만 4천 명(3.9%) 증가해 전체 서비스산업 고용을 견인(전월비로는 9만 3천 명 증가)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44만 9천 명 증가(전월비로는 5만 3천 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 2019.7월 +35.4 → 8월 +41.0 → 9월 +44.9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 2019.7월 -0.5 → 8월 -4.0 → 9월 +5.3

### (3) 서비스수지

#### □ 9월 서비스수지 25억 달러 적자

- 2019년 9월 서비스수지는 여행 적자 감소 및 건설업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사용료 적자전환 및 운송업 적자 확대로 인해 전체 적자규모가 전월 18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크게 증가

- 수입액이 증가(1억 달러 증가)하는 한편 수출액이 크게 감소(6억 달러 감소)해 전체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

- 건설업은 흑자규모가 전월 6억 8천만 달러에서 8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해 지속적으로 전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수지	-17,338	-36,734	-29,737	-7,659	-4,689	-5,979	-1,670	-1,800	-2,509
가공서비스	-5,762	-6,955	-7,558	-1,856	-1,859	-1,888	-692	-619	-576
유지보수	1	-99	-16	-8	29	4	51	-19	-28
운송	-1,329	-5,418	-4,374	-899	-719	-851	-361	-173	-317
여행	-10,357	-18,324	-16,654	-3,568	-2,613	-3,026	-1,178	-1,067	-781
건설	9,557	7,878	9,483	2,175	2,496	2,378	854	684	840
보험	-283	-106	-97	-50	-36	-81	-37	-32	-12
금융	62	296	846	139	104	139	35	101	3
지식재산권사용료	-2,493	-2,415	-2,129	-1,316	-223	-301	113	244	-658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991	1,126	2,107	369	452	531	134	213	183
기타 사업서비스	-7,721	-12,214	-11,211	-2,624	-2,344	-2,858	-608	-1,158	-1,092
개인, 문화, 여가	468	198	260	119	68	91	65	29	-2
정부	-470	-701	-395	-142	-44	-119	-47	-3	-69

자료 : 한국은행.

주 :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체 서비스 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건설업은 흑자규모가 전월 8억 5천만 달러에서 6억 8천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전체 서비스 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여행업은 유학연수, 일반여행 모두 적자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적자규모가 전월 10억 6천만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로 대폭 감소
-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전월 2억 4천만 달러 흑자에서 6억 5천만 달러 적자 전환
- 운송업도 해상운송 적자 증가 및 항공운송 흑자 감소로 인해 전체 적자규모가 전월 1억 7천

만 달러에서 3억 1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

- 기타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서비스는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와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 적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적자규모는 전월 11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9천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서비스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가공서비스는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입액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 6억 2천만 달러에서 5억 7천만 달러로 감소

# IV

## 지역별 동향

### 01 개관

#### (1) 생산

- 2019년 9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0.4% 증가
  - 세종(10.3%), 강원(8.6%), 대전(6.2%) 등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서울(-6.4%), 충북(-5.9%), 대구(-4.5%) 등 지역에서는 감소

#### 지역 생산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2.4	1.3	4.3	-2.1	-0.7	-0.8	-2.7	0.6	-3.3	0.4
수도권	서울	1.5	0.6	1.2	-7.7	-6.0	-4.9	-6.0	-1.7	-6.5	-6.4
	인천	7.0	-0.2	-2.8	-8.8	-4.2	-6.9	-5.9	-9.1	-7.6	-3.6
	경기	5.9	7.8	4.2	-6.3	1.2	0.3	-1.2	0.7	-1.8	2.2
충청권	대전	-1.1	-10.6	-3.9	-2.3	17.8	13.1	12.5	20.9	12.6	6.2
	세종	3.3	6.1	15.8	-2.0	1.6	7.4	2.2	7.5	4.3	10.3
	충북	5.4	2.6	12.4	3.8	2.5	-2.4	-3.3	2.4	-3.4	-5.9
	충남	14.4	2.3	-0.2	-8.5	-4.9	-4.9	-5.5	-3.2	-10.1	-1.3

(계속)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호남권	광주	3.0	-6.0	7.6	1.4	6.5	0.2	0.9	4.0	-5.7	2.0
	전북	1.9	-2.6	0.5	-7.4	-6.4	-5.4	-10.3	-3.2	-9.3	-3.7
	전남	-1.9	-2.7	-2.4	0.8	-2.2	0.4	-6.1	0.1	-2.0	3.3
대경권	대구	0.8	0.6	8.4	7.0	4.0	-2.3	-6.3	3.6	-6.2	-4.5
	경북	-4.6	-3.0	0.2	-3.0	-1.6	-1.4	-3.9	-2.8	1.0	-2.2
동남권	부산	-5.9	-3.3	4.0	-1.9	-2.6	-2.8	-5.8	-3.6	-3.0	-1.6
	울산	-0.9	3.4	11.8	4.5	2.9	0.5	1.6	11.2	-7.5	-1.5
	경남	-3.2	-4.5	2.9	-1.9	2.9	-2.7	1.5	1.1	-6.5	-3.1
강원권		6.2	-3.1	0.4	0.5	-0.8	1.4	-4.1	-0.5	-3.2	8.6
제주권		9.4	1.0	-6.4	0.4	-7.2	-7.0	-11.8	-9.4	-7.8	-3.0

자료 : 통계청, 「광역제조업동향조사」.

주 : \*는 잠정치.

## (2) 고용

- 2019년 9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40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3% 증가  
 - 세종(10.4%), 부산(2.9%), 강원(2.9%) 등 지역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충남(-1.4%), 경남(-1.4%) 등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감소

### 지역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26,725 (1.2)	26,822 (0.4)	26,971 (0.3)	26,461 (0.7)	27,256 (0.9)	27,382 (1.4)	27,408 (1.0)	27,383 (1.1)	27,358 (1.7)	27,404 (1.3)
수도권	서울	5,152 (0.1)	5,080 (-1.4)	5,060 (-1.6)	4,972 (-2.2)	5,098 (-0.2)	5,145 (1.4)	5,134 (0.2)	5,153 (1.0)	5,132 (1.3)	5,151 (2.0)
	인천	1,533 (0.9)	1,575 (2.7)	1,586 (2.3)	1,558 (0.5)	1,592 (0.7)	1,586 (0.4)	1,599 (0.3)	1,582 (-0.6)	1,582 (0.8)	1,593 (1.0)
	경기	6,685 (2.8)	6,790 (1.6)	6,829 (0.8)	6,772 (1.5)	6,993 (2.5)	6,999 (2.4)	7,051 (3.2)	7,009 (2.5)	6,998 (2.8)	6,991 (1.8)

(계속)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충청권	대전	764 (-1.3)	759 (-0.7)	758 (-1.2)	754 (-0.8)	764 (0.5)	785 (3.7)	771 (2.0)	781 (2.8)	787 (5.1)	787 (3.3)
	세종	129 -	148 (14.7)	157 (17.2)	159 (16.9)	167 (13.6)	171 (11.8)	169 (12.7)	172 (13.2)	172 (12.4)	170 (10.4)
	충북	861 (1.9)	876 (1.7)	880 (1.1)	850 (2.0)	891 (-0.6)	895 (-0.1)	890 (-2.2)	893 (-0.9)	896 (0.1)	895 (0.6)
	충남	1,140 -	1,179 (3.4)	1,195 (2.8)	1,157 (4.7)	1,216 (1.9)	1,209 (-1.1)	1,216 (1.5)	1,212 (-0.8)	1,204 (-1.1)	1,209 (-1.4)
호남권	광주	744 (1.9)	749 (0.7)	752 (0.5)	739 (-0.4)	749 (-0.3)	751 (0.0)	753 (0.9)	747 (-0.1)	753 (0.7)	753 (-0.5)
	전북	921 (-2.0)	915 (-0.7)	923 (0.4)	902 (2.0)	940 (1.5)	934 (1.0)	944 (1.6)	941 (1.5)	927 (1.2)	933 (0.3)
	전남	957 (-0.7)	961 (0.4)	978 (0.8)	952 (2.4)	973 (0.3)	981 (1.4)	975 (0.6)	968 (0.3)	978 (1.7)	998 (2.5)
대경권	대구	1,239 (-0.6)	1,226 (-1.0)	1,236 (0.6)	1,204 (0.8)	1,228 (-0.6)	1,227 (-0.9)	1,233 (-0.8)	1,227 (-1.8)	1,228 (-0.5)	1,226 (-0.6)
	경북	1,447 (0.3)	1,427 (-1.4)	1,443 (-0.1)	1,388 (0.7)	1,436 (-0.4)	1,448 (0.3)	1,447 (0.1)	1,447 (0.5)	1,450 (0.7)	1,447 (-0.1)
동남권	부산	1,685 (-0.1)	1,657 (-1.7)	1,672 (-0.4)	1,643 (-0.3)	1,672 (0.5)	1,692 (2.8)	1,680 (0.2)	1,696 (2.5)	1,687 (3.0)	1,692 (2.9)
	울산	584 (1.4)	574 (-1.7)	571 (-2.9)	558 (-3.6)	574 (-0.5)	576 (1.1)	577 (-0.2)	577 (1.6)	572 (-0.2)	579 (1.9)
	경남	1,723 (1.1)	1,746 (1.3)	1,756 (1.3)	1,727 (1.8)	1,751 (-0.7)	1,754 (-0.8)	1,755 (-1.7)	1,752 (-1.6)	1,755 (0.3)	1,753 (-1.4)
강원권	790 (5.5)	789 (-0.1)	795 (0.5)	751 (3.2)	834 (2.6)	849 (3.5)	832 (1.6)	848 (4.0)	851 (3.8)	847 (2.9)	
제주권	374 (5.4)	372 (-0.5)	379 (0.3)	375 (2.2)	381 (2.7)	381 (2.4)	383 (3.2)	377 (1.6)	384 (3.5)	382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 (3) 수출

- 2019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7% 감소한 447억 달러를 기록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지속 감소세이며, 전북(-24.3%), 경기(-22.7%) 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15.8	5.4	7.7	-8.8	-8.4	-12.2	-13.7	-11.0	-13.8	-11.7
수도권	서울	7.4	12.6	11.3	-5.1	-12.8	-13.1	-19.3	-9.3	-17.6	-12.3
	인천	9.7	3.8	5.1	0.1	-8.4	-10.1	-16.3	-6.5	-12.8	-11.1
	경기	26.5	15.5	11.2	-13.3	-16.8	-23.8	-23.2	-22.1	-26.4	-22.7
충청권	대전	7.0	1.4	23.4	-4.3	-11.6	-4.7	-10.6	-2.6	-9.6	-1.9
	세종	1.2	20.0	33.9	30.0	-11.6	11.9	-6.3	13.9	9.2	12.6
	충북	25.0	16.2	8.6	-6.9	-1.8	-4.5	-6.4	-4.5	-5.9	-3.0
호남권	충남	20.6	15.2	1.8	-16.5	-12.6	-13.7	-16.9	-10.9	-16.3	-13.4
	광주	1.7	-1.9	6.6	-4.0	-3.5	-9.5	-5.9	-7.8	-12.6	-8.3
	전북	0.3	24.1	13.1	-15.5	-14.2	-19.7	-11.7	-11.6	-23.4	-24.3
대경권	전남	11.4	17.9	19.9	-7.1	-14.2	-8.9	-22.1	-11.6	-10.7	-4.1
	대구	4.3	12.3	7.3	-0.7	-12.1	-9.9	-14.8	-9.7	-9.9	-9.9
동남권	경북	16.5	-8.9	-12.1	-9.6	-10.9	-9.1	-13.0	-12.0	-10.6	-4.3
	부산	7.0	-4.4	-7.9	-13.3	-7.3	4.0	-6.7	3.8	4.3	4.0
	울산	2.2	5.1	28.9	1.4	11.0	-7.5	5.7	-7.0	-6.0	-9.4
	경남	31.4	-32.3	-6.6	-11.0	10.4	10.0	6.3	4.7	23.9	4.7
강원권		7.4	17.6	14.6	8.6	1.4	-4.0	0.5	-0.6	-8.3	-3.2
제주권		20.4	17.4	4.5	-19.5	-30.2	-16.8	-51.7	-19.7	-16.1	-14.8

자료: 한국무역협회.

## 02 지역별 동향

### (1) 서울·인천·경기

- 서울 : 생산 감소(-6.4%), 고용 증가(2.0%), 수출 감소(-12.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5%), 의복 및 모피제품(-9.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4.2%) 등 생산이 동반 감소하며 생산 감소세 지속
  - 제조업(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 등 전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인 합성수지(-3.2%), 반도체(-53.9%) 등 품목의 수출 감소세로 지역 수출 감소
- 인천 : 생산 감소(-3.6%), 고용 증가(1.0%), 수출 감소(-11.1%)
  - 기타 기계 및 장비(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9%)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5.5%) 등 업종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6.0%) 고용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20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로 전체 고용 증가
  -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0.8%)의 감소세는 증가 전환하였으나, 철강판(-28.8%), 자동차(-38.4%) 등 품목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경기 : 생산 증가(2.2%),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22.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7%) 등 업종의 감소로 전체 생산 다소 감소
  - 제조업(-5.9%)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8.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로 전체 고용이 증가하며 전월 증가세 유지
  -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44.1%)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5.8%), 무선통신기기(-18.0%) 등 수출 감소세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서울·인천·경기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가액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1.8	0.7	11.3	3.8	-3.3	-7.6	-6.8	-1.2	-11.0	-9.9
		전자부품 외	-1.1	-14.8	-9.2	0.0	2.9	2.5	-2.4	14.3	1.2	-6.5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5.4	1.9	5.5	-8.9	-9.8	-9.6	-19.4	-11.5	-12.6	-4.2
	인천	기계 및 장비	11.0	-1.7	0.1	-11.8	-13.8	-7.4	-16.3	-2.9	-19.6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7.7	-8.9	11.6	5.0	-0.8	-5.6	-12.4	-2.4	1.7	-15.5
		전자부품 외	7.2	1.2	-14.9	-23.2	-10.5	-7.4	-13.7	-25.5	-2.1	7.9
	경기	전자부품 외	4.7	18.0	8.2	-4.9	1.3	-2.6	-0.3	-4.3	-1.8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2.2	12.8	4.9	3.4	7.2	-2.1	12.7	-5.7	14.6
		기계 및 장비	40.7	2.6	-12.1	-17.0	20.4	35.4	26.5	34.9	25.4	45.7
고용	서울	농림·어업	10 (42.9)	7 (-30.0)	6 (-25.0)	6 (-14.3)	8 (14.3)	9 (28.6)	8 (0.0)	8 (0.0)	9 (28.6)	8 (33.3)
		제조업	453 (-6.4)	450 (-0.7)	436 (-5.8)	447 (-4.5)	452 (-1.3)	450 (2.7)	450 (0.7)	436 (-2.0)	463 (7.2)	451 (3.2)
		SOC·서비스	4,690 (0.7)	4,624 (-1.4)	4,618 (-1.2)	4,519 (-1.9)	4,638 (-0.0)	4,687 (1.3)	4,675 (0.1)	4,709 (1.3)	4,660 (0.7)	4,691 (1.8)
	인천	농림·어업	4 (-33.3)	6 (50.0)	8 (100.0)	8 (33.3)	17 (183.3)	20 (233.3)	19 (216.7)	18 (200.0)	20 (300.0)	21 (200.0)
		제조업	358 (2.9)	353 (-1.4)	345 (-2.5)	331 (-7.3)	332 (-7.0)	325 (-7.4)	332 (-7.0)	324 (-9.2)	323 (-6.9)	328 (-6.0)
		SOC·서비스	1,170 (0.3)	1,216 (3.9)	1,233 (3.5)	1,219 (2.6)	1,243 (2.1)	1,241 (1.5)	1,248 (1.3)	1,239 (0.9)	1,239 (1.6)	1,244 (1.8)
	경기	농림·어업	118 (0.0)	112 (-5.1)	108 (-3.6)	66 (13.8)	136 (-0.7)	154 (7.7)	145 (1.4)	152 (5.6)	154 (8.5)	155 (8.4)
		제조업	1,330 (2.8)	1,321 (-0.7)	1,303 (-3.7)	1,255 (-7.5)	1,249 (-4.2)	1,245 (-5.8)	1,241 (-4.8)	1,241 (-5.6)	1,241 (-5.7)	1,254 (-5.9)
		SOC·서비스	5,236 (2.8)	5,356 (2.3)	5,418 (2.0)	5,451 (3.8)	5,607 (4.2)	5,601 (4.3)	5,665 (5.2)	5,616 (4.4)	5,603 (4.8)	5,583 (3.6)
수출	서울	57,386 (7.4)	64,618 (12.6)	16,516 (11.3)	14,488 (-5.1)	14,342 (-12.8)	14,226 (-13.1)	4,453 (-19.3)	5,019 (-9.3)	4,600 (-17.6)	4,607 (-12.3)	
	인천	39,287 (9.7)	40,781 (3.8)	10,614 (5.1)	9,550 (0.1)	9,568 (-8.4)	9,184 (-10.1)	3,013 (-16.3)	3,290 (-6.5)	2,964 (-12.8)	2,929 (-11.1)	
	경기	124,129 (26.5)	143,338 (15.5)	36,216 (11.2)	28,840 (-13.3)	30,547 (-16.8)	28,339 (-23.8)	9,575 (-23.2)	9,821 (-22.1)	9,187 (-26.4)	9,331 (-22.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2) 대전·세종·충북·충남

- 대전 : 생산 증가(6.2%), 고용 증가(3.3%), 수출 감소(-1.9%)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28.4%), 기타 기계 및 장비(9.8%) 등의 생산 증가세로 지역생산 증가세 지속
  - 9월 취업자 수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에서 감소하였지만, 제조업(29.3%) 부문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며 지역 전체 고용 증가
  - 전년동월 수출 상위품목이었던 원동기 및 펌프(11.4%), 건전지 및 축전지(26.0%) 등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기호식품(-13.2%), 계측제어 분석기(-56.7%) 등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 소폭 감소
- 세종 : 생산 증가(10.3%), 고용 증가(10.4%), 수출 증가(12.6%)
  -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0.3%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
  - 제조업(-11.5%) 부문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0%) 등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고용 증가
  -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부품(25.0%), 기구부품(41.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1.2%)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북 : 생산 감소(-5.9%), 고용 증가(0.6%), 수출 감소(-3.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0.1%) 등의 생산 감소로 식료품 제조업(12.4%)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0%), 제조업(-1.1%) 고용이 감소하였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 부문의 증가로 전체 고용 증가
  -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0%)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컴퓨터(6,420.7%) 수출 급증으로 전체 수출 감소폭 축소
- 충남 : 생산 감소(-1.3%), 고용 감소(-1.4%), 수출 감소(-13.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3%), 자동차 및 트레일러(-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4%) 등 업종의 생산이 동반 감소하며 전체 생산 감소세 지속

## 대전·세종·충북·충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증가율	대전	담배 제조업	3.5	-19.8	-16.0	-19.4	13.9	34.1	9.5	33.4	40.9	28.4
		기계 및 장비	9.0	-7.3	-5.8	14.5	20.6	17.5	11.5	32.1	11.8	9.8
		화학제품 외	-14.4	-13.8	-7.5	17.7	57.2	22.8	42.6	46.8	32.7	-2.7
	세종	총지수	3.3	6.1	15.8	-2.0	1.6	7.4	2.2	7.5	4.3	10.3
		전자부품 외	-3.9	6.2	14.9	17.1	3.3	-2.1	-6.3	-2.5	3.1	-6.6
		식료품	-0.6	3.7	13.1	13.7	16.3	16.3	16.5	25.4	11.5	12.4
	충북	화학제품 외	29.6	1.0	5.2	1.4	5.1	-0.2	-2.4	1.9	-2.5	-0.1
		전자부품 외	30.0	9.6	-4.0	-8.9	-1.0	-12.8	3.1	-12.1	-21.7	-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2.8	-5.6	9.0	-7.5	3.7	2.7	-1.8	20.8	-10.1	-2.0
	화학제품 외	8.9	4.1	3.0	-6.2	-20.5	-4.0	-20.4	-1.9	-6.5	-3.4	
	대전	농림·어업	9 (0.0)	7 (-22.2)	6 (-33.3)	5 (-28.6)	8 (14.3)	9 (28.6)	10 (66.7)	8 (14.3)	9 (28.6)	10 (42.9)
		제조업	90 (7.1)	84 (-6.7)	85 (1.2)	95 (11.8)	100 (20.5)	105 (28.0)	100 (20.5)	103 (24.1)	105 (28.0)	106 (29.3)
SOC·서비스		665 (-2.3)	668 (0.5)	667 (-1.0)	653 (-2.1)	655 (-2.2)	671 (0.4)	660 (-1.0)	670 (-0.1)	673 (1.8)	671 (-0.4)	
세종	농림·어업	8 -	7 (-12.5)	7 (-12.5)	6 (0.0)	9 (28.6)	8 (14.3)	8 (33.3)	8 (14.3)	8 (14.3)	9 (28.6)	
	제조업	20 -	24 (20.0)	25 (25.0)	26 (18.2)	24 (-4.0)	24 (-7.7)	24 (-4.0)	25 (-3.8)	23 (-8.0)	23 (-11.5)	
	SOC·서비스	101 -	117 (15.8)	125 (17.9)	127 (16.5)	134 (15.5)	139 (15.8)	136 (14.3)	139 (16.8)	140 (16.7)	138 (14.0)	
충북	농림·어업	89 (6.0)	90 (1.1)	93 (1.1)	70 (2.9)	96 (-4.0)	100 (0.0)	103 (-1.0)	101 (1.0)	99 (-1.0)	99 (-1.0)	
	제조업	173 (-3.9)	182 (5.2)	185 (6.9)	189 (8.6)	190 (4.4)	189 (0.0)	187 (0.5)	187 (-1.6)	192 (2.7)	187 (-1.1)	
	SOC·서비스	597 (2.9)	601 (0.7)	600 (-0.5)	590 (0.2)	603 (-1.5)	606 (0.2)	600 (-2.8)	605 (-0.7)	605 (-0.2)	608 (1.7)	
충남	농림·어업	125 -	140 (12.0)	135 (1.5)	97 (5.4)	158 (-4.2)	164 (-1.8)	161 (-4.2)	158 (-4.2)	166 (-1.8)	168 (0.6)	
	제조업	263 -	270 (2.7)	279 (5.7)	277 (3.7)	271 (3.0)	264 (-2.6)	268 (1.1)	266 (0.4)	264 (-1.5)	263 (-5.4)	
	SOC·서비스	752 -	769 (2.3)	781 (2.0)	782 (5.0)	787 (2.9)	780 (-0.5)	787 (2.9)	788 (-0.5)	775 (-0.6)	778 (-0.4)	
수출	대전	4,454 (7.0)	4,515 (1.4)	1,325 (23.4)	995 (-4.3)	1,041 (-11.6)	933 (-4.7)	336 (-10.6)	327 (-2.6)	298 (-9.6)	308 (-1.9)	
	세종	1,024 (1.2)	1,229 (20.0)	347 (33.9)	327 (30.0)	285 (-11.6)	346 (11.9)	94 (-6.3)	122 (13.9)	111 (9.2)	114 (12.6)	
	충북	20,001 (25.0)	23,233 (16.2)	5,948 (8.6)	5,242 (-6.9)	5,684 (-1.8)	5,610 (-4.5)	1,912 (-6.4)	1,887 (-4.5)	1,845 (-5.9)	1,878 (-3.0)	
	충남	79,842 (20.6)	91,968 (15.2)	22,538 (1.8)	18,766 (-16.5)	19,772 (-12.6)	21,057 (-13.7)	6,690 (-16.9)	6,557 (-10.9)	7,003 (-16.3)	7,498 (-13.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제조업(-5.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 부문 취업자 수 감소로 전체 고용 감소세
- 주력수출품인 반도체(-22.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1%) 등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며 지역 수출 감소

### (3) 광주·전북·전남

- **광주** : 생산 증가(2.0%), 고용 감소(-0.5%), 수출 감소(-8.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9.5%), 기타기계 및 장비(14.1%)의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도 증가 전환
  - 농림·어업(54.5%) 부문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8%) 및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3%)의 고용이 동반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목인 자동차(1.2%) 수출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반도체(-17.9%), 냉장고(-29.6%) 등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역 수출 감소
- **전북** : 생산 감소(-3.7%), 고용 증가(0.3%), 수출 감소(-24.3%)
  - 자동차 및 트레일러(-1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5%)의 생산 감소세로 전체 생산 감소 지속
  - 제조업(-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4.1%)의 증가로 전체 고용 다소 증가
  - 전년동월 수출 상위품목이었던 정밀화학원료(-10.0%), 자동차(-23.6%), 합성수지(-19.5%) 등의 수출 감소로 지역 수출 감소세
- **전남** : 생산 증가(3.3%), 고용 증가(2.5%), 수출 감소(-4.1%)
  - 1차 금속(-4.5%), 석유정제품(-0.5%)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0.9%) 등 업종의 생산 증가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
  - 농림·어업(-1.0%) 부문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 수출 상위 품목인 석유제품(-11.4%), 합성수지(-10.9%), 철강판(-9.4%) 등 품목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 감소

### 광주·전북·전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가 액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9.0	12.5	1.9	1.7	7.8	-2.8	13.6	-1.0	9.5
		전기장비	8.9	-1.4	8.0	2.5	3.1	-2.8	-2.8	-1.2	-5.5	-1.8
		기계 및 장비	26.7	-12.3	-2.8	20.0	24.5	1.4	4.1	2.5	-9.1	14.1
	전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0.2	-13.8	-0.8	-7.0	-5.9	-11.6	-10.0	1.0	-23.6	-13.0
		화학제품 외	4.5	-4.4	-8.0	-14.9	-14.6	-8.6	-22.5	-8.9	-10.1	-6.5
		식품품 제조업	12.5	3.4	6.1	4.9	5.6	5.3	-0.2	7.7	5.6	2.8
	전남	화학제품 외	5.1	-2.2	-10.6	-0.3	-6.3	-1.5	-11.3	-2.1	-2.9	0.9
		1차 금속 제조업	-1.4	-2.8	-0.4	-3.3	-0.2	-3.6	-1.7	-1.1	-5.2	-4.5
		석유정제품	1.3	3.7	-0.9	7.0	-16.5	0.0	-19.3	-1.4	2.0	-0.5
고용	광주	농림·어업	13 (-13.3)	10 (-23.1)	8 (-27.3)	8 (-11.1)	11 (0.0)	15 (50.0)	13 (8.3)	13 (44.4)	16 (60.0)	17 (54.5)
		제조업	116 (12.6)	111 (-4.3)	113 (-2.6)	110 (1.9)	109 (-3.5)	109 (-1.8)	109 (-3.5)	108 (-2.7)	110 (0.0)	110 (-1.8)
		SOC·서비스	614 (0.5)	627 (2.1)	631 (1.8)	620 (-0.6)	629 (0.5)	626 (-0.6)	630 (1.4)	625 (-0.3)	627 (0.0)	626 (-1.3)
	전북	농림·어업	144 (2.1)	157 (9.0)	167 (15.2)	152 (22.6)	174 (4.8)	176 (3.5)	179 (4.1)	175 (4.2)	175 (2.9)	178 (4.1)
		제조업	123 (3.4)	123 (0.0)	124 (-4.6)	124 (-3.9)	125 (5.0)	123 (4.2)	128 (11.3)	129 (8.4)	121 (3.4)	118 (-0.8)
		SOC·서비스	653 (-4.0)	635 (-2.8)	632 (-1.9)	627 (-0.6)	640 (-0.2)	634 (-0.3)	636 (-0.8)	635 (-0.6)	630 (0.2)	637 (-0.6)
	전남	농림·어업	200 (-6.1)	196 (-2.0)	195 (-3.5)	188 (2.7)	197 (-3.9)	199 (-1.5)	201 (-3.4)	199 (-2.0)	198 (-2.0)	199 (-1.0)
		제조업	106 (-14.5)	103 (-2.8)	106 (3.9)	108 (1.9)	103 (2.0)	100 (3.1)	101 (1.0)	97 (0.0)	100 (7.5)	103 (3.0)
		SOC·서비스	650 (3.8)	662 (1.8)	676 (1.7)	656 (2.5)	673 (1.5)	683 (2.4)	673 (2.0)	672 (1.2)	681 (2.3)	696 (3.6)
수출	광주	14,951 (1.7)	14,664 (-1.9)	3,908 (6.6)	3,369 (-4.0)	3,537 (-3.5)	3,242 (-9.5)	1,110 (-5.9)	1,199 (-7.8)	993 (-12.6)	1,050 (-8.3)	
	전북	6,309 (0.3)	7,828 (24.1)	1,870 (13.1)	1,661 (-15.5)	1,743 (-14.2)	1,577 (-19.7)	558 (-11.7)	593 (-11.6)	494 (-23.4)	490 (-24.3)	
	전남	31,054 (11.4)	36,622 (17.9)	9,304 (19.9)	8,199 (-7.1)	7,974 (-14.2)	8,392 (-8.9)	2,304 (-22.1)	2,850 (-11.6)	2,702 (-10.7)	2,840 (-4.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4) 대구·경북

- 대구 : 생산 감소(-4.5%), 고용 감소(-0.6%), 수출 감소(-9.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5.1%), 기타 기계 및 장비(-22.5%) 생산이 동반 감소하며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어업(5.9%) 부문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3%)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체 고용 감소세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4.4%), 기타 기계류(-22.6%) 등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세 지속
- 경북 : 생산 감소(-2.2%),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감소(-4.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0.9%)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1차 금속(-5.6%), 자동차 및 트레일러(-3.9%)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은 감소 전환

## 대구·경북 주요 동향

단위 :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증가율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1.1	6.7	-1.2	-5.4	-5.1	-9.5	1.2	-11.6	-5.1
		금속가공제품	2.5	-5.9	-2.0	-5.5	-3.2	4.3	-9.1	3.1	1.7	8.5
		기계 및 장비	7.1	13.7	13.1	-4.2	9.2	-14.6	-6.1	-1.3	-18.7	-22.5
	경북	전자부품 외	-19.6	-11.4	-12.3	-10.9	-6.0	3.1	-12.8	-19.6	28.7	0.9
		1차 금속	3.6	-2.0	-4.9	-6.9	-11.0	-7.6	-10.9	-8.2	-8.7	-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	4.7	18.5	10.0	2.5	-2.3	0.3	12.0	-14.2	-3.9
고용	대구	농림·어업	19 (-9.5)	30 (57.9)	32 (45.5)	28 (21.7)	34 (6.3)	35 (0.0)	35 (6.1)	35 (2.9)	35 (0.0)	36 (5.9)
		제조업	261 (4.0)	253 (-3.1)	262 (-0.4)	254 (1.2)	247 (0.0)	245 (-3.5)	245 (-2.0)	243 (-4.3)	247 (-1.6)	246 (-4.3)
		SOC·서비스	957 (-1.7)	942 (-1.6)	943 (0.1)	921 (-0.1)	946 (-0.9)	946 (-0.4)	953 (-0.8)	949 (-1.1)	946 (0.0)	943 (0.0)

(계속)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고용	경북	농림·어업	218 (0.9)	235 (7.8)	250 (14.7)	227 (18.2)	265 (8.2)	270 (6.3)	269 (7.6)	270 (8.4)	272 (6.3)	267 (4.3)
		제조업	291 (-1.7)	284 (-2.4)	292 (0.3)	287 (-0.3)	291 (5.4)	302 (8.2)	297 (8.4)	299 (10.7)	305 (8.5)	301 (4.9)
		SOC·서비스	936 (0.6)	906 (-3.2)	899 (-3.7)	873 (-2.7)	878 (-4.6)	875 (-3.7)	880 (-4.3)	877 (-4.8)	872 (-3.3)	877 (-2.9)
수출	대구	7,213 (4.3)	8,103 (12.3)	2,064 (7.3)	1,929 (-0.7)	1,857 (-12.1)	1,789 (-9.9)	579 (-14.8)	632 (-9.7)	577 (-9.9)	581 (-9.9)	
	경북	44,870 (16.5)	40,891 (-8.9)	9,997 (-12.1)	9,205 (-9.6)	8,991 (-10.9)	9,672 (-9.1)	2,862 (-13.0)	3,124 (-12.0)	3,313 (-10.6)	3,235 (-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농림·어업(4.3%), 제조업(4.9%) 부문 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9%)의 감소로 전체 고용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철강판(-7.3%), 광학기기(-15.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7.7%), 반도체(-33.7%)의 동반 부진으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5) 부산·울산·경남

● 부산: 생산 감소(-1.6%), 고용 증가(2.9%), 수출 증가(4.0%)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4.5%)는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4.6%), 1차 금속(-2.9%) 등의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4.8%) 부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4.6%) 부문의 증가로 고용 증가세 유지

- 주력수출품인 자동차(-3.9%), 철강판(-7.0%) 등은 감소하였으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90.3%), 원동기 및 펌프(4.3%)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지역 전체 수출은 증가세 유지

● 울산: 생산 감소(-1.5%), 고용 증가(1.9%), 수출 감소(-9.4%)

## 부산·울산·경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업 산 증가 업	부산	기계 및 장비	5.8	5.2	5.6	-0.1	-4.7	7.6	-16.9	-9.0	20.7	1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2	-12.2	-3.1	-26.1	-16.8	-3.8	-13.2	-1.5	-5.7	-4.6
		1차 금속 제조업	-2.4	-7.6	-2.2	3.7	-0.6	-1.3	-2.7	0.7	-1.7	-2.9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12.3	39.0	12.4	11.0	3.3	11.6	39.0	-17.4	-5.8
		화학제품 외	5.9	0.7	-2.9	1.1	-0.2	-1.3	2.3	1.0	-1.4	-3.6
		석유정제품	2.5	-1.1	-2.0	-2.8	2.0	-7.0	-3.2	-6.8	-4.2	-9.9
	경남	기타 운송장비	-23.6	-13.8	21.3	32.7	41.8	31.5	33.0	41.0	34.2	18.7
		기계 및 장비	8.8	0.2	-4.2	-7.4	0.2	-12.9	-0.4	-7.7	-18.9	-13.2
		금속가공제품	-16.3	-8.5	3.1	-22.2	-13.6	-19.8	-6.5	-24.8	-13.4	-20.1
고용	부산	농림·어업	13 (18.2)	10 (-23.1)	8 (-33.3)	3 (-70.0)	7 (-36.4)	9 (-10.0)	8 (-27.3)	9 (-10.0)	10 (0.0)	9 (-10.0)
		제조업	297 (-1.3)	286 (-3.7)	288 (0.7)	294 (4.6)	294 (3.2)	282 (-3.1)	293 (1.0)	286 (-2.4)	282 (-2.1)	279 (-4.8)
		SOC·서비스	1,375 (0.1)	1,360 (-1.1)	1,375 (-0.2)	1,345 (-0.7)	1,371 (0.4)	1,400 (4.2)	1,379 (0.4)	1,400 (3.7)	1,396 (4.2)	1,404 (4.6)
	울산	농림·어업	9 (0.0)	6 (-33.3)	7 (-22.2)	6 (-14.3)	6 (0.0)	7 (40.0)	6 (0.0)	6 (20.0)	6 (20.0)	7 (16.7)
		제조업	192 (-8.1)	185 (-3.6)	181 (-3.7)	177 (-4.8)	182 (-3.2)	177 (-3.3)	181 (-3.7)	177 (-3.3)	178 (-3.3)	176 (-3.8)
		SOC·서비스	382 (7.3)	383 (0.3)	382 (-2.3)	376 (-2.6)	386 (0.8)	393 (3.4)	390 (1.8)	394 (4.0)	388 (1.3)	396 (4.8)
	경남	농림·어업	161 (-1.8)	183 (13.7)	186 (14.8)	166 (5.1)	181 (-6.2)	185 (-5.1)	180 (-9.5)	181 (-4.7)	181 (-7.2)	191 (-4.0)
		제조업	430 (-0.7)	418 (-2.8)	410 (-5.1)	397 (-7.9)	391 (-7.6)	393 (-3.7)	395 (-7.1)	399 (-4.1)	392 (-2.0)	387 (-5.4)
		SOC·서비스	1,131 (2.2)	1,144 (1.1)	1,158 (1.8)	1,163 (5.2)	1,178 (2.7)	1,174 (0.8)	1,179 (1.6)	1,170 (-0.3)	1,180 (2.3)	1,173 (0.4)

(계속)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수출	부산	15,064 (7.0)	14,407 (-4.4)	3,446 (-7.9)	3,330 (-13.3)	3,564 (-7.3)	3,431 (4.0)	1,183 (-6.7)	1,254 (3.8)	1,120 (4.3)	1,057 (4.0)
	울산	66,700 (2.2)	70,127 (5.1)	18,703 (28.9)	16,380 (1.4)	18,833 (11.0)	16,930 (-7.5)	5,865 (5.7)	5,914 (-7.0)	5,715 (-6.0)	5,301 (-9.4)
	경남	59,474 (31.4)	40,257 (-32.3)	11,144 (-6.6)	10,042 (-11.0)	10,500 (10.4)	9,660 (10.0)	3,364 (6.3)	3,312 (4.7)	3,026 (23.9)	3,323 (4.7)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5.8%), 석유정제품(-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6%)의 동반 생산 감소로 전체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8%)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제조업(-3.8%)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은 증가 전환

- 지역 주요 수출품인 석유제품(-33.6%), 합성수지(-9.0%) 등의 감소로 자동차(2.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77.3%)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감소

● 경남 : 생산 감소(-3.1%), 고용 감소(-1.4%), 수출 증가(4.7%)

- 기타 운송장비(18.7%)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기타 기계 및 장비(-13.2%), 금속가공제품(-20.1%)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어업(-4.0%), 제조업(-5.4%) 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로 지역 전체 고용 감소

-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1.1%)과 섬유 및 화학기계(323.7%)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체 수출 증가 지속

## (6) 강원·제주

- 강원 : 생산 증가(8.6%), 고용 증가(2.9%), 수출 감소(-3.2%)
  - 지역 특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48.9%) 및 음료 제조업(11.4%)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전환
  - 농림·어업(8.5%), 제조업(17.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의 전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세 유지
  - 수출 상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2.5%), 자동차부품(50.5%)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합금철선철 및 고철(-62.9%) 등 품목의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체 수출 감소
- 제주 : 생산 감소(-3.0%), 고용 증가(2.4%), 수출 감소(-14.8%)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24.6%), 식료품 제조업(-26.9%)의 동반 생산 감소가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주도
  - 농림·어업(13.6%), 제조업(9.1%) 부문의 취업자 수가 증가로 지역 전체 고용 증가세 유지
  - 지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31.6%)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역 전체 수출도 감소

## 강원·제주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주요 업종(품목)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산 증가율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6.3	-17.7	-13.7	0.1	-5.0	-6.1	-6.3	-5.6	0.4	-12.7
		식료품	10.3	-1.8	12.1	17.9	-2.9	11.9	-9.9	-8.3	-1.6	48.9
		음료	0.1	4.0	3.7	-3.1	12.1	4.5	-3.7	7.5	-4.1	11.4
	제주	음료	9.0	12.3	-21.3	26.8	2.3	-17.0	-12.0	-19.4	-6.8	-24.6
		식료품	2.5	-15.8	-4.3	14.1	-14.7	-20.3	-29.2	-8.0	-27.2	-26.9
		비금속 광물제품	10.1	-23.1	-15.0	6.5	-13.8	-11.9	-8.8	-21.0	-25.4	17.9
고용	강원	농림·어업	85 (9.0)	87 (2.4)	85 (1.2)	57 (5.6)	105 (1.9)	114 (7.5)	108 (0.9)	114 (8.6)	113 (7.6)	115 (8.5)
		제조업	52 (-3.7)	52 (0.0)	53 (1.9)	52 (0.0)	53 (1.9)	58 (16.0)	55 (7.8)	58 (18.4)	57 (16.3)	60 (17.6)
		SOC·서비스	642 (5.6)	643 (0.2)	650 (0.8)	636 (3.8)	671 (3.4)	670 (1.7)	663 (1.5)	670 (2.3)	676 (2.3)	665 (0.6)
	제주	농림·어업	55 (-3.5)	59 (7.3)	65 (14.0)	65 (22.6)	66 (15.8)	67 (11.7)	68 (17.2)	66 (10.0)	68 (13.3)	67 (13.6)
		제조업	13 (-7.1)	12 (-7.7)	10 (-28.6)	10 (-33.3)	11 (-8.3)	13 (18.2)	12 (9.1)	12 (0.0)	13 (30.0)	12 (9.1)
		SOC·서비스	306 (7.7)	301 (-1.6)	303 (-1.3)	300 (0.3)	304 (0.7)	301 (0.0)	303 (0.3)	299 (0.0)	301 (0.0)	303 (0.0)
	수출	강원	1,783 (7.4)	2,097 (17.6)	557 (14.6)	504 (8.6)	537 (1.4)	520 (-4.0)	184 (0.5)	183 (-0.6)	169 (-8.3)	168 (-3.2)
		제주	155 (20.4)	182 (17.4)	51 (4.5)	35 (-19.5)	32 (-30.2)	35 (-16.8)	10 (-51.7)	11 (-19.7)	11 (-16.1)	13 (-14.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1) 고용은 취업자 수.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